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도안 설명

• 상, 하 白色은 우리 민족의 바탕인 純粹를, 좌, 우 靑面은 푸른 정조와 푸른 동산을 나타내면서 항구적인 平和를 상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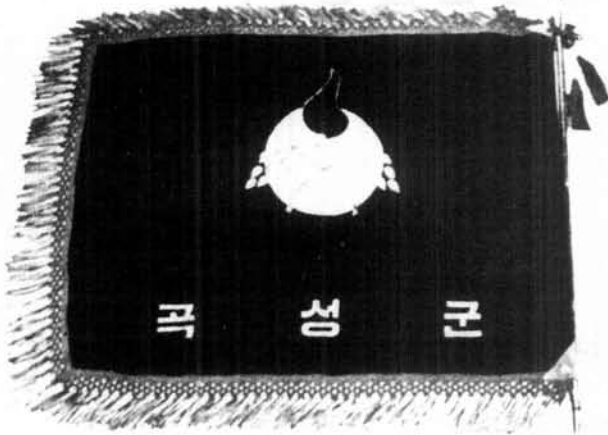
• 중앙의 문화원 마아크는「文」字 5개가 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협동의 의미와 함께 지역 문화 창달의 구심체임을 나타내고 있음.

* 각 문화원기는 연합회 회기 도안과 같으나, 하단 시, 군명만 다르게 고안되어 있음.



〈谷城文化院舍〉

군기해설



1. 봉화는 필승의 신념과 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단결을 뜻한다.
2. 습은 단군묘의 상징으로서 군민의 기본정신을 여기에 설정하고.
3. ○은 향토방위와 중요한 사회를 표시하고
4. 벼알은 11개 읍면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5. △는 동악산의 표시이며 정신개척을 뜻하고
6. 밑의 부분은 「谷」곡성의 “고을곡”자를 표시한 것임
7. 색채
 붉은빛 — 정열과 광명
 주황빛 — 풍요와 평화
 은 빛 — 영광과 희망
 푸른빛 — 젊음과 생동
 흰 빛 — 순결과 백의



〈谷城郡廳〉

곡성군민헌장

1969. 4. 25 제정

유구히 흐르는 섬진강을 끼고 밝은 내일을 향하여 뻗어가는 곡성군은 조상이 터를 닦은 정다운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단군의 큰뜻을 지키고 받아들인 곡성 군민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내고장의 명예를 더욱 빛내고 살기 좋은 낙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제 헌장을 마련합니다.

- 내고장 발전과 방위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뭉칩시다.
- 법을 지키고 서로 도와 명랑한 환경을 이룩합시다.
-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한푼이라도 아껴 모읍시다.
-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의례를 간소하게 치룹시다.
- 어린이들은 사랑으로 선도하여 알뜰히 가꿉시다.

郡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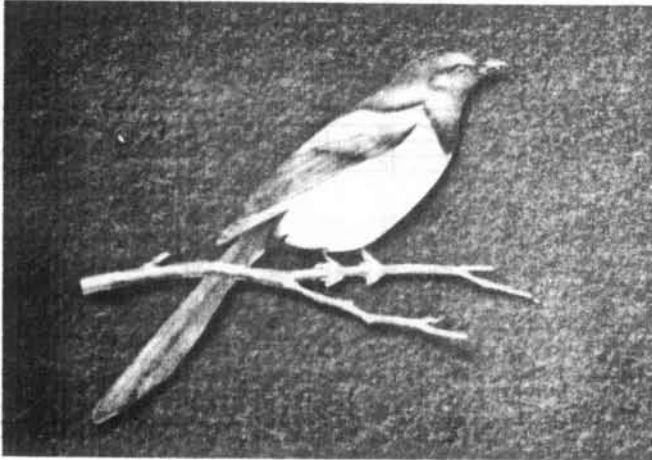


□느티나무 (槐 木)

Zelora Serrata Makino

年輪이 明確, 強質로 뒤틀리지 않음. 紋樣과 光澤이 良好, 不汚 不濕으로 建築材, 機械材, 農機 具材, 樂器材, 船舶材, 彫刻材, 車輪材, 家具材로서 谷城 郡民의 強建, 志操, 多才多能함을 象徵 함.

郡 鳥



□까 치

Pica Picajeponica

構巢에 能하고, 益鳥, 吉鳥인 郡鳥로서, 鶺鴒愛情, 鶺鴒聲吉調, 鶺鴒吉音信 등은 谷城 郡民의 사랑 즐거움의 소식등을 象徵하는 것 이라 한다.

郡 花



□개나리

For Sythia Koreana

建國樹, 藥用으로 많이 쓰이며 黃純色은 谷城 郡民이 繼然無垢, 繼然愛護, 平和愛護, 情緒醇化를 象徵함.

谷城文化院事業('94)



장기대회(1등: 석곡면, 2등: 석곡면, 3등: 고달면)



웃놀이(1등: 석곡면, 2등: 오산면, 3등: 곡성읍)



유치부 사생대회



청소년 미술대회 시상식



청소년 짓기 백일장



청소년 시예 백일장



서화전시회



무용단 초청 공연



청소년 유적지 순례



청소년 향토문화 강좌



효행자 표창

효부상	곡성읍 장선2구리	강용순
◇	고달면 목동리	김봉남
◇	삼기면 수산리	이해례
◇	석곡면 석곡리	신정순
◇	오곡면 미산리	임삼임
◇	옥과면 황산리	박남례
효자상	죽곡면 용정리	최성열
◇	오산면 선세리	김일기
◇	목사동면 용사리	서이순



고대 인물 사진전시회



유치원부 대상
(김영진: 서국교)



초등부 저학년 대상
(이정미: 서국교 3-1)



초등부 고학년 대상
(박윤희: 옥수분교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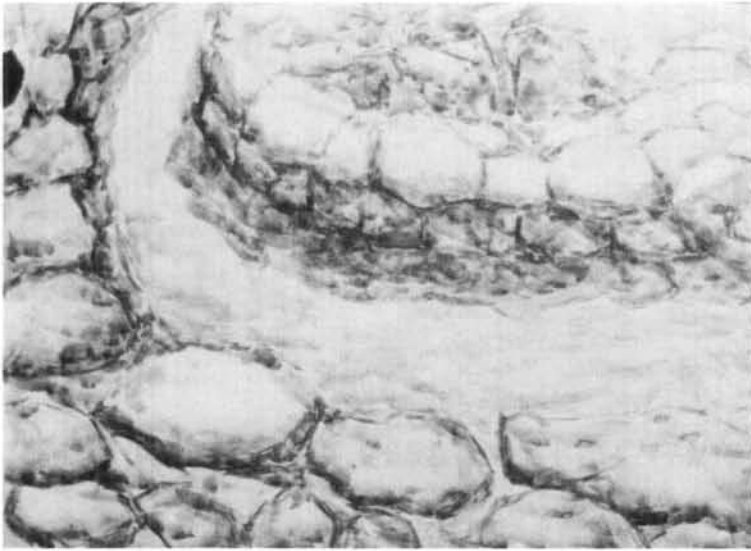
수목화 초등부 대상
(서계화: 죽곡국교 6-1)



중등 풍경화 대상
(정은진: 곡성여중 3-2)



중등 정물화 대상
(이 승: 곡성여중 3-3)



고등 풍경화 대상
(오숙희: 옥과고 2-4)



고등 정물화 대상
(문소현: 곡성고 2-2)

義節의 고장



金 吉 榮
(谷城文化院長)

내고장은 옛부터 나라가 危機에 處했을때 救國精神, 護國精神, 奉仕精神, 愛國精神, 犧牲精神으로 國家에 忠誠을 다했던 고장으로 他地方에 비해 越等하게 많은 人物들이 배출된 고장이다. 代表人物로서 高麗태조 왕건(王建)때 사람으로 견훤(甄萱)이 세운 후백제軍과 팔공산(八公山) 싸움에서 태조 왕건의 신변이 위태로웠을때 태조 왕건을 피하게 하고 왕건의 어의(御衣)를 갈아입고 어차(御車)를 타고 왕으로 가장하여 싸우다 戰死한 壯節公申崇謙將軍 高麗末朝鮮初때 사람으로 高麗 제2王子亂때 功을 세운 忠靖公馬天牧將軍 壬辰倭亂때 全國에서 第一먼저 義兵을 募集하여 義兵將으로 錦山戰鬪에서 장렬히 戰死한 月坡柳彭老將軍等外에도 數10名の 많은 人物들을 낳은 곳이라 義鄉의 谷城이라 부르고 있다. 사람이란 父母에 孝道하고 나라에 忠誠하는 것이 道理인줄 아는 내고장 郡民들이라 자랑스럽게 널리 알리고저 한다.

本誌 發刊에 協助해주신 諸賢및 特히 영세한 財源에도 物心兩面으로 支援해 주신 安丞淳 郡守님과 議會則에 感謝드리며 止筆고저 한다.

祝 辭



安 丞 淳
(谷城郡守)

郷土文化와 先人들의 살아 숨쉬는 숨결을 다시 再照明케 하여 自矜心과 愛郷心을 심어 주게 될 創刊號에 이어 第2號 「내고장 谷城」 發刊을 眞心으로 祝賀 드립니다.

그리고 「내고장 谷城」 發刊을 위해 獻身的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길영 谷城文化院長님께 眞心으로 慰勞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고장 谷城은 예로부터 빼어난 산과 강 등 天惠의 地理的 與件을 갖춘 복받은 곳으로 先人들이 남긴 훌륭한 郷土文化遺産과 忠, 孝의 일이 담긴 各種 資料가 풍부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文化遺産과 先人들의 일이 現代 物質文明에 묻혀 잊혀져 가고 특히, 各種 開發事業으로 인한 地形變化로 遺失되어 가고만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先人들의 文化遺産과 일을 記錄으로 남겨 後世代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責任이라 생각할 때, 이번 谷城文化院이 이고장 곳곳에서 전해 내려 오는 生活 風習과 民謠, 그리고 說話, 傳說 등을 發掘하고 문인들의 시와 수필을 엮어 수록, 保存 하는 일은 매우 훌륭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고장 谷城」의 책자가 過去와 現代를 이어주는 連結고리로서 이 고장의 文化遺産을 영구히 保存하여 後世代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資料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번 「내고장 谷城」 책자 發刊을 계기로 우리고장 郷土文化 遺産이 길이 保存되고 地域發展에 크게 이바지 할것으로 期待하면서 谷城文化院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내고장 곡성」 발간을 축하하면서

차 경 섭

(시인)

가치와 인륜도덕 그리고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어 가는
참담한 현실앞에 지성의 정서가 풍부한 청량제요
활력소가 될 텃밭의 문학이야말로 만인의 양식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가꾸어야 할 소중한 꿈나무요
밀거름 퇴비를 듬뿍 부어 황폐해 가는 황무지에 향기 그윽한
꽃을 피워내는 고향땅의 등불이라 하겠습니다.

골깊고 유서깊은 곡성 아직 문학지가 없어서 서운하게 여겼는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문화원장님으로부터 곡성문학지를 발간하신다는
반가운 소식을 주셔서 기쁜마음 금할길 없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산자수명하고 청정한 고향땅 곡성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인
여러조건이 타지역보다는 어려운 여건이라서 향토 문학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닌줄 압니다.

일찍이 고향을 떠난 몸으로 아련한 기억을 더듬어볼때
큰일 하시는 문화원장님의 애로와 노고가 많으실줄 이해되며
만시지탄이나마 내고장 고성을 발간함에 있어 첫술에 만족함보다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껏 때문지 않은 소중한 향토사의
옛문화를 발굴하여 쑥밭에서 장미꽃을 피워낸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어느 문학지 보다도 화려하고 알찬 향토 문학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기름진 옥답없고 산자수려한 오지라서 후현한 백리평야는
없을지라도 한생의 삶에도 기막힌 애환이 피고지듯
많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곡성에는 후덕한 인심이 있고
순박한 인성심성은 예나지금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날이 더해가는 황금만능 물질주의의 그릇된 삶과 탐욕의 인간성을

탄식하는 소리 높은 이때 삭막한 무지몽매를 깨우치고 참마음과 올바른 정신을 회복케 하고 윤택하게 살찌우는 참문학지야말로 황금으로 살수없는 값진 영약이요 풍요한 마음의 재산이요 원천이라 하겠습니다.

하므로 쉽없이 높고 깊은 꿈을 안고 솟아오르는 저태양처럼 높이 밝혀든 햇불을 따라 이제 곡성군민은 잠을 깨고 하나 되어서 돋워주고 밀어주는 애향심으로 많은 성원해 주실줄 기대하면서 깊은 애정과 참된 이해로 옛조상의 혼과 얼 기풍이 살아 숨쉬는 발자취와 유형무형의 많은 풍속과 풍물을 발굴 개발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재조명 고취하여 보존하고 가꾸어서 이어가는 진실한 파수꾼의 등불 향토 문학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전통의 자아의식을 고양하여 아름답고 서정 넘친 향훈이 담뱃 담긴 따뜻한 문학지로서 목마른 자에게는 해갈이 되고 약자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강한자에게는 겸손의 미덕을 가진자는 나눔의 지혜를 익히고 사악한 자에게는 자애로운 길잡이로 인도자가 되어 광명의 길을 열어주는 문학지가 곡성에서 펼쳐지리라 믿는 바입니다.

언제나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의 자세와 고운 목소리는 언제라도 아름답고 또한 향토 문학지의 길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강한 한줄기 빛을 발하는 동천해를 바라보면서 중단없는 참다운 선구자 정신이 요구되는 긴박한 현실입니다.

가진것은 없어도 영원히 살아 숨쉬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깨우치고 사고하는 마음은 곡성을 빛내기 위함이요 군민에게는 고향 마음을 정확히 심어주고 알려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의 적절이 큰일하시는 문화원장님께 마음 깊이 성원 드리면서 고향을 지키시는 군민 여러분에게도 본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많은 이해하여 주시고 다복한 새해 을해년을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일 뜻과 함께 성취하시어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향토 문학지가 나오기까지 어려운 여건에도 심혈을 기울이신 문화원장님 또한 함께 참여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쁜 마음 이만 축사에 가뭇할가 합니다.

내 고장 곡성

- 發刊辭・義節의 고장.....谷城文化院長 金吉榮 • 16
- 祝 辭.....谷城郡守 安丞淳 • 17
- 축사・「내고장 곡성」 발간을 축하하면서.....詩人 차경섭 • 18

現 況

- 谷城郡 梧谷面.....22
- 谷城 郵遞局.....36
- 谷城 電話局.....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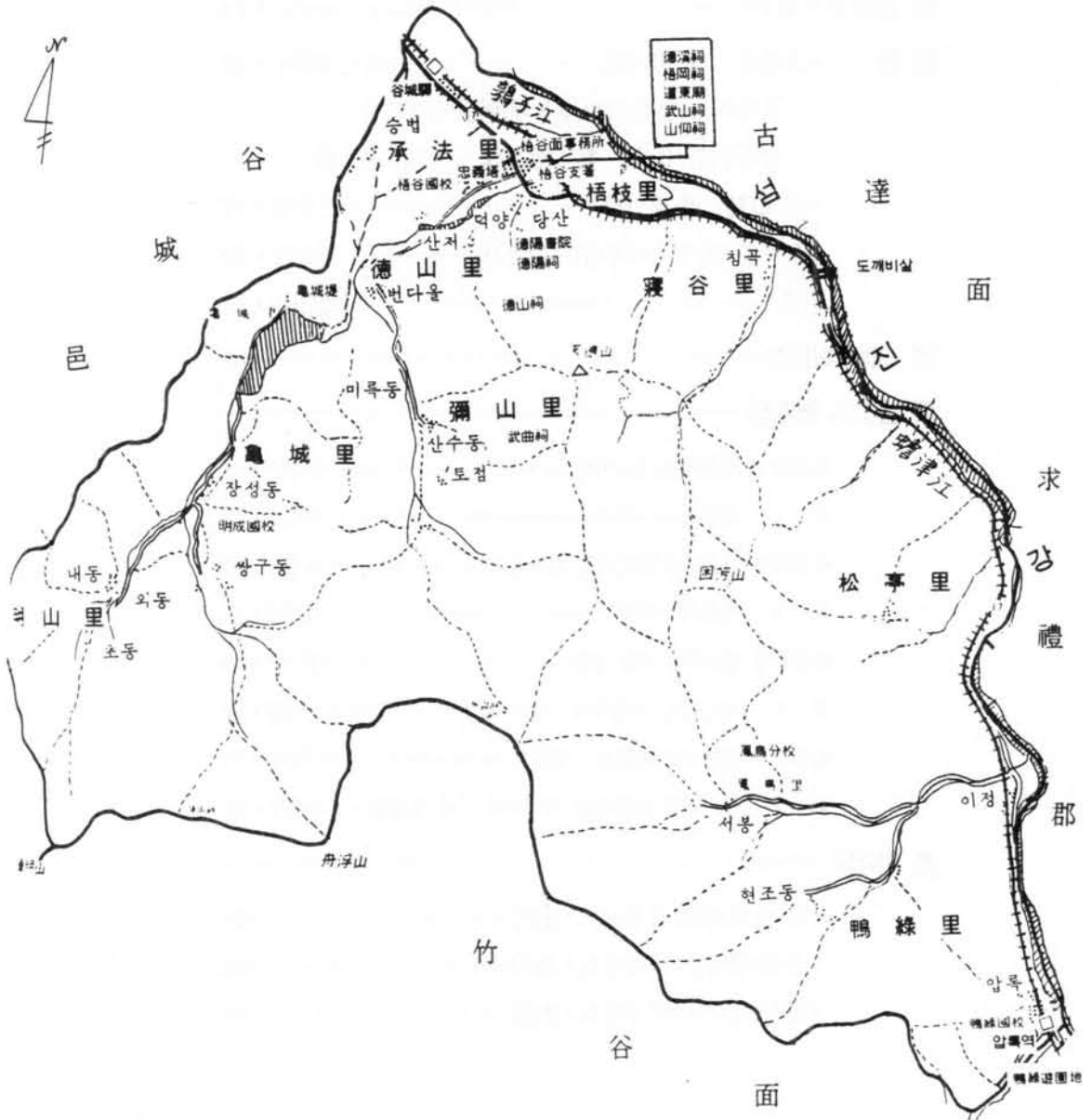
내고장을 빛낸 사람들

-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申崇謙).....40
 - 사직(社稷)의 위(危)를 구한 충정공마천목(忠靖公馬天牧).....42
 - 금산전(錦山戰)에서 장렬히 전사한 월파 유평노(月坡 柳彭老).....43
 - 張夢世(1562 - 1597).....44
 - 愛國忠節의 故梁遠謨.....45
 - 書藝家 雲菴 趙鏞敏.....47
 - 李相俊의 古典舞踊.....48
 - 韓炳文의 烙竹粧刀.....49
- 谷城(옛) 城터.....50
- 梧竹鳳・穀城館.....52
 - “옛” 곡성 군민의 노래.....52
 - 谷城의 민속놀이.....53

● 道林寺 가는길.....	谷城高等學校長 鄭捷澈	• 60
■ 견문기	대양주.....	곡성죽곡중학교교장 이수열 • 63
■ 詩	오월의 등대(외14편).....	詩人 車敬燮 • 69
	봄비/바람/풀꽃/신비/봄노래/어린이/봄뜨락	
	꿈나무/봄/아가는 천사/동심/봄길/계절/가는 봄	
	파도/단군전/태안사.....	신현영 • 77
	몰락한 집/당산나무집/수간호사.....	시인 김진문 • 79
	집.....	金正淑 • 82
■ 서예	백일장.....	83
■ 글짓기	백일장.....	
	● 저학년 산문대상/우리아버지.....	송승우 • 85
	● ♪ 운문대상/선풍기.....	백명재 • 86
	● 고학년 산문대상/꿀벌처럼 살거예요.....	서선옥 • 87
	● ♪ 운문대상/아침.....	김민섭 • 88
	● 중등부 산문대상/푸른 5월.....	안상용 • 89
	● ♪ 운문대상/강변에서.....	윤석중 • 90
	● 고등부 산문대상/내일을 향해서.....	선종수 • 91
	● ♪ 운문대상/고향마을 기억속의 나의 고향집.....	이미라 • 93
■ 기행문	
	● 금상/이지혜(곡성실고 · 2년).....	94
	● 은상/임갑순(곡성실고 · 2년).....	96
	● 동상/정금숙(곡성실고 · 2년).....	98

谷城郡 마을 現況

梧谷面圖



梧谷面내마을

◎梧谷面

1. 所在地: 谷城郡 梧谷面 梧枝里

2. 位置

(1) 經緯度上 位置 및 地理的 位置

區分 方位	經緯度上 位置			地理的 位置	
	地名	經度	緯度	方位	隣接地名
極 東	鴨綠里	127° 27' 9"		東	谷城郡 古達面
極 西	明山里	127° 20' 9"		西	谷城郡 三岐面
極 南	鴨綠里		35° 10' 8"	南	谷城郡 竹谷面
極 北	梧枝里		35° 17' 9"	北	谷城郡 谷城邑

3. 沿革

本面은 百濟 文周王때(서기 475年) 谷城郡을 欲乃(一名 浴川)라 稱하고 當時 邑을 竹谷面 堂洞里에 두다가 新羅 景德王 16年(서기 763年)에 谷城이라 改稱했던 谷城의 隸屬村으로 高麗 顯宗9年(서기 1019年)에 谷城과 함께 昇州郡에 移屬되었고, 朝鮮朝 太宗 13年(서기 1413年)에 南原도호부의 管割下에 들어가 宣朝 30年(서기 1596年) 同府로 合하였다가 光海元年(서기 1609年)에 同府로부터 分離됨에 따라 復舊되었고, 光武 3年(서기 1899年) 谷城郡으로 改稱됨에 따라 本面 上道方面의 牛谷面과 下道方面의 梧枝面이었던 것을 西紀 1914年 行政區域 變更에 따라 兩面을 廢合하여 梧谷面으로 改稱케 되었다. 1973年 1月 1日 行政區域 變更에 따라 本面 猫川里가 谷城邑으로 分離되어 가고, 法定 里 10個里에 21個 部落으로 現在에 이르고 있다.

4. 地勢

本面은 本郡의 東北部에 位置하여 東은 蟾津江을 境界로 古達面과 求禮郡 求禮邑을 隣接하고 西北은 谷城邑과 三岐面을 隣接하고 南은 通明山을 中心으로 竹谷面과 隣接하였으며, 管內에 熊方山, 天德山等 高山이 있고 梧枝里 倉庫平野 및 承法, 猫川平野를 除外하고는 대부분 山間溪谷으로 林野가 태반을 占有하고 있다.

또한 本面은 北으로부터 南으로 흐르는 蟾津江邊을 따라 全羅線鐵道와 포장된 國道가 各 13Km에 達하여, 本郡內 唯一의 谷城驛과 鴨綠驛을 保有한 交通의 要地이기도 하며, 道內 屈指의 貯水地인 龜城堤가 있고 蟾津江과 寶城江의 合流地點인 鴨綠觀光地는 湖南에서도 有名하다.

◎ 전동(前洞) 마을(梧枝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177	88	89	39	23	62					
姓 氏 (戶)										
計	李氏	安氏	趙氏	金氏	朴氏	洪氏	鄭氏	林氏	文氏	其他
57	9	9	7	6	3	3	3	2	2	13

□ 마을形成

마을 안과 주위에 散在한 고인돌(Dolmen)의 分布로나 龜城堤 北 錦城山 所在의 馬韓時代인 것으로 推定되는 古山城의 遺蹟으로 미루어 本里의 形成이 상당한 규모의 大理가 上古로부터 이루어졌으나 記錄은 未尋이며 18代에 걸쳐 居住해온 晋州姜氏의 入鄕 先祖인 姜友德이 1446年頃 本里에 定着해 왔다고 傳한다.

□ 地名由來

온갓 마을의 形勢가 옷(衣)과 갓(冠) 山形地勢에 緣由한다고도 하고 의관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양반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란 뜻에서 비롯됐다고도 하는데 지금도 “옷갓” 마을이란 俗稱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梧枝”는 谷城鎭山인 動樂山의 形勢가 風水地理上 “飛鳳抱卵穴” 이어서 竹洞, 竹谷, 棲鳳, 留鳳 等과 함께 鳳棲梧枝 即 “非竹實不食, 非醴泉不飲非梧桐不棲” 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前洞”은 大里의 마을 앞 동네라 해서 前洞이라 함.

◎ 남동(南洞) 마을(梧枝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260	132	128	59	15	74					
姓 氏 (戶)										
計	李氏	鄭氏	趙氏	姜氏	金氏	朴氏	吳氏	申氏	柳氏	其他
74	10	9	7	7	6	5	3	2	2	23

□ 마을形成

梧枝1區인 前洞과 같은데 본래 内洞이라는 洞이 하나 더 있었으나 西北의 一部는 前洞에 南部는 本洞에 併合되어 오늘에 이름.

□ 地名由來

本里의 南方에 位置했기 때문에 南洞이라 稱하게 됨. 그리고 梧枝里 全 마을에는 朝鮮朝 中葉부터 洞里의 防賊을 위해 東西南北의 四大門을 달아 朝夕으로 時間을 定해 開閉했으며 이로서 戰亂時나 防賊·防犯이 잘 되어 人命과 財産의 被害를 덜었다. 他地에서는 보기드문 施設과 鄉制로 他的 부러움을 모았으며 마을 規模가 커서 東南前·後 內 上洞으로 分洞하고 各洞의 有司와 里 總有司를 두어 運營해왔고 現在는 堂山, 新洞, 倉洞을 追加하고 內洞을 廢하여 8個區로 行政 區分하였다.

◎ 동동(東洞) 마을(梧枝3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212	110	102	54	9	63					
姓 氏 (戶)										
計	鄭氏	金氏	李氏	安氏	朴氏	姜氏	吳氏	盧氏	高氏	其他
63	14	12	6	4	3	2	3	3	3	13

□ 마을形成

梧枝 1區와 같음.

□ 地名由來

梧枝 1區와 같고 東쪽에 位置한다 해서 東洞이라 함.

◎ 후동(後洞) 마을(梧枝4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205	96	109	54	16	70					
姓 氏 (戶)										
計	安氏	洪氏	金氏	盧氏	吳氏	李氏	姜氏	朴氏	柳氏	其他
70	12	12	9	5	4	3	2	2	1	20

□ 마을形成

梧枝 1區와 同.

■ 마을 現況

地名由來

마을 뒤쪽에 位置해서 붙인 이름.

◎ 상동(上洞) 마을(梧枝5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258	124	134	52	21	73					
姓 氏 (戶)										
計	金氏	曹氏	朴氏	李氏	安氏	吳氏	韓氏	梁氏	黃氏	其他
73	13	15	5	5	4	4	3	3	2	19

마을形成

梧枝 1區와 같다.

地名由來

마을 윗쪽에 位置하여 上洞이라 함.

◎ 창동(倉洞) 마을(梧枝6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241	117	124	29	43	72					
姓 氏 (戶)										
計	金氏	李氏	崔氏	朴氏	趙氏	黃氏	吳氏	呂氏	張氏	其他
72	15	7	5	5	5	4	3	3	2	23

마을形成

竹山人 全甲泰씨가 1925年 和順郡 同福에서 入住하였고 酒幕거리가 形成되기는 오래이나 全羅線鐵道가 通리고 谷城驛이 생기면서 마을이 形成. 谷城關門 마을이 됨.

地名由來

1932年 全羅線 鐵道開通과 함께 谷城驛이 생기면서 倭놈들의 收奪의 象徴인 倉庫가 新築이 됨

에 “倉庫들”이요 “倉洞”이라 불리우고 본래 마을 이름이 “기와막등”이었으므로 “기와막등 주막거리”란 이름으로도 불리어 오다가 改廢 당시 倉洞으로 굳혔다.

◎당산(堂山) 마을(梧枝7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185	81	104	43	12	55					
姓 氏 (戶)										
計	柳氏	金氏	吳氏	鄭氏	張氏	李氏	趙氏	崔氏	朴氏	其他
55	12	10	4	4	3	3	3	3	3	10

□ 마을形成

李朝初 馬天牧 先代에 長興에서 馬氏一家가 移居했다 하나 後孫은 없고, 1498年 戊午土禍를 避해 谷城大坪으로 入郷한 副司正 柳緝의 8世孫 尙和가 分家하여 本 마을로 移居 定着한 後로 10代 390餘年에 이르고 있다.

□ 地名由來

古時에 大里가 形成될 당시 上古人의 信仰인 蘇塗, 城隍堂, 山神堂 等に 堂祭를 올린 聖所가 있는 山 即 堂山의 마을이란 데서 음.

◎신동(新洞) 마을(梧枝8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66	35	31	15	3	18					
姓 氏 (戶)										
計	朴氏	金氏	李氏	韓氏	任氏	鄭氏	張氏	趙氏	氏	其他
18	2	1	6	1	1	1	2	4		

□ 마을形成

1928(戊辰年) 大洪水로 인하여 大里 앞 錦川 川邊에 살던 水害罹災民들의 新宅地로 現位置에다 큰洞네의 隣保의 救護를 받아 設村함.

■ 마을 現況

□ 地名由來

새로 생긴 동네라 해서 “새뜸”이라 부르고 新洞이라 記名하여 倉洞과 더불어 6區에 屬해 있다가 1983年 行政區域 變更으로 分離 8區가 됨.

◎ 덕산(德山) 마을(德山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129	66	63	39	4	43					
姓 氏 (戶)										
計	吳氏	申氏	盧氏	趙氏	姜氏	李氏	金氏	朴氏	尹氏	其他
43	15	6	6	4	2	2	2	2	1	3

□ 마을形成

本里는 高麗 11代 文宗時 金氏, 朴氏가 터를 잡아 살았다 하나 未詳이며 1626年頃 海州吳氏 入鄉祖인 善纘이 他鄉살아라야 發福한다는 四柱에 따라 南原水旨面에서 移住 定着하여 15代에 이르고 있으며, 山底里 錦溪里 및 書院里로 3個 自然聚落으로 形成돼 있다.

□ 地名由來

山 밑에 있는 마을이라 “매밑에” “괴미테”(山底里) 錦川邊 양지쪽 마을이어서 “양지뜸”(錦溪里) 德陽書院 및 浣溪精舍가 있는 書堂골이라 해서 “서우네”라고 各各 呼稱돼 오다 1914年 郡面 併合 整理 당시 세 마을을 合併하여 天德山(539.8m)에서 德山이라 取名 오늘에 이른다.

◎ 침곡(寢谷) 마을(寢谷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65	31	34	12	13	25					
姓 氏 (戶)										
計	李氏	金氏	宣氏	朴氏	宋氏	宋氏	全氏	申氏	安氏	其他
25	8	3	2	2	1	2	1	1	1	4

□ 마을形成

延安人 李權翼이 1786年 光州 大峙洞에서 移住, 7代에 이르고 있으며 寢谷礦山이 開發되면서

마을이 더욱 늘어났다 하나 山間部落으로 農土는 적고 所産이 없어 洞里가 伸張되지 못하고 總 29家口로서 形成되어 있다.

□ 地名由來

柳氏宗山에 墓를 쓰던중 寢穴의 明堂이 나타나 以後로 침실(寢室)이라 하였는데 1914 郡面 合併때 寢谷이라 記名하고 오늘에 이름.

◎ 송정(松亭) 마을(松亭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75	29	46	23	3	26					
姓 氏 (戶)										
計	姜氏	金氏	趙氏	崔氏	鄭氏	任氏	尹氏	宋氏	氏	其他
26	3	9	5	1	2	3	2	1		

□ 마을形成

李朝 定宗때 金海人 金再哲이 慶尙道 淸道에서 避亂 定着以後 이곳에는 그 後孫이 6代孫 4戶가 살고 있으며 總家口 24戶로 形成됨.

□ 地名由來

蟾津江으로 흘러드는 桃散川가에 소나무 亭子가 있어서 景致가 빼어남으로 “슬정자”의 “소정” “쇠정” 하다가 1914年 改編때 松亭里로 記名함.

◎ 서봉(棲鳳) 마을(鳳鳥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107	57	50	29	3	32					
姓 氏 (戶)										
計	金氏	吳氏	車氏	洪氏	崔氏	朴氏	李氏	梁氏	具氏	其他
32	11	6	3	3	2	2	2	1	1	1

□ 마을形成

壬辰倭亂時 羅州羅氏가 避亂와서 定着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나 그 後孫은 없고 1660年頃 海州人 吳 秀가 南原으로부터 梧枝里를 거쳐 移住하여 8代에 이르고 있으며 同年代頃에 慶州金氏가 定着하여 또한 8代孫에 이르고 있다.

□ 地名由來

말골 : 곱방산의 “良馬赴賊” 明堂說을 좇아 말(馬)골이라 했다는 說과 골짜기 形勢가 말(斗)같이 생겼다 하여 말골이라 했다는 두 說이 있고 또
 棲鳳 : 風水說의 飛鳳抱卵穴에 따라 봉이 깃들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다가 1914 改編에 玄鳥의 鳥와 棲鳳의 鳳을 合하여 鳳鳥里라 記名함.

◎ 현조(玄鳥) 마을(鳳鳥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99	52	47	22	4	26					
姓 氏 (戶)										
計	金氏	李氏	廉氏	呂氏	鄭氏	張氏	姜氏	梁氏	宋氏	其他
26	11	7	1	1	1	2	1	1	1	

□ 마을形成

李朝 光海君때 全州人 李商老(校尉公)가 定着 10代에 이르고 同年代에 金海人 金世堅(監察公)가 定着 11代에 이르고 있으며 “검새골”과 “가자골” “중뚝” 등으로 聚落돼 있다.

□ 地名由來

330年前 順興安氏 先山에 穿壤하던중 검은 새 한마리가 날아가고 한마리는 남아 있었다는 傳說에 따라서인지 검새골 卽 玄鳥洞이라 부르고 있으며 棲鳳(말골)과 併合 鳳鳥里 2區라 하고 있다.

◎ 압록(鴨綠) 마을(鴨綠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492	228	264	88	45	133					

姓 氏 (戶)										
計	金氏	韓氏	朴氏	任氏	李氏	張氏	申氏	安氏	曹氏	其他
133	40	19	16	9	7	4	3	3	3	29

□ 마을形成

1530年代에 金海人 金重章이 慶南山淸에서 移住 定着하여 15代에 이르고 있으며 約400餘年前 密陽朴氏가 入住하여 現在 12代孫에 이르고 있다.

□ 地名由來

約 900年前 蟾津江과 寶城江의 푸른물이 合流하는 곳이라 하여 合綠이라 부르다가 400餘年前 마을이 形成되면서 川魚가 많이 生産되는 곳이라 오리과의 철새들이 많이 날아드는 것을 보고 습을 鴨으로 代置하여 鴨綠이라 記名했다 함. 또한 秀麗한 경치는 예로부터 詩人墨客이 不絶하여 谷城 八景의 白眉인 鴨綠歸帆으로 表現된다.

◎ 압록(鴨綠) 마을(鴨綠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87	47	40	22	4	26					
姓 氏 (戶)										
計	金氏	韓氏	李氏	曹氏	崔氏	黃氏	沈氏	吳氏	氏	其他
26	8	5	5	3	2	1	1	1		

□ 마을形成

金海人 金昌信이 古達面 杜柯里에서 居住하다 約 150年前 어느해 山沙汰로 마을이 廢墟가 되자 물건너 本 마을로 移居한 후로 5代에 이르고 있다.

□ 地名由來

마을 形成 당시 마을周邊에 枯木이 된 배나무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배정어” 곧 梨亭리라 부르다 併合되면서 鴨綠2區가 됨. 一說에는 靑樓인 遊廓의 이름이 梨花亭이었던 데서 緣由한다고도 하나 確實치가 않다.

◎ 승법(承法) 마을(承法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147	83	64	31	6	37							
姓 氏 (戶)												
計	姜氏	郭氏	趙氏	金氏	朴氏	都氏	安氏	李氏	張氏	趙氏	劉氏	孔氏
37	4	1	2	5	6	1	2	11	1	2	1	1

□ 마을形成

錦川 川邊의 300餘戶에 達했던 月山洞(大里)이 李朝中葉 어느 해인가 大洪水로 廢墟가 됐을때 李氏, 金氏, 趙氏, 姜氏들이 本里로 移居 定着했다 한다.

□ 地名由來

本里로 移住할 당시 法堂이 있었기 때문에 承法里라 부르게 됨.

◎ 명산(明山) 마을(明山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97	50	47	24	12	36							
姓 氏 (戶)												
計	吳氏	金氏	梁氏	高氏	張氏	趙氏	沈氏	郭氏	具氏	其他		
36	13	5	3	2	1	2	1	1	1	7		

□ 마을形成

海州人 吳正鉉이 德山에서 通明山 및 明堂터를 찾아 4兄弟를 거느리고 移住하여 오늘에 이름.

□ 地名由來

1846年頃 牛谷面 草洞里였으나 風水地理 祕訣에 이르기를 “通明山下拾里許”에 “臥牛穴”이 있는데 明堂터만 잡는다면 “三丞九將錦千錦” 한다 했다 하여 臥牛穴인 이곳에 마을 터를 잡고 草洞이라는 村名을 “鳴山”이라 했다가 郡面合併 整理時 梧谷面이 되면서 通明山下의 마을이라 하여 明山里로 改稱함.

◎쌍구(雙龜) 마을(龜城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103	52	51	29	6	35					
姓 氏 (戶)										
計	金氏	氷氏	姜氏	趙氏	韓氏	孫氏	朴氏	崔氏	林氏	其他
35	5	4	3	3	3	2	2	2	2	9

□ 마을形成

年代未詳時 利川 徐綠이 晋州로부터 移住한 후로 18代에 이르고 있으나 그 孫은 分散되었고 以後 子孫의 繁盛을 爲해 入住한 金海金氏가 9代에 이르고 光山金氏 等이 차례로 入住 定着하여 오늘에 이름.

□ 地名由來

風水地理說에 依하면 마을터가 雙龜穴이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郡面里 合併時 長城洞과 併合, 龜城里로 改稱되고 그 1區가 됨.

◎장성동(長城洞) 마을(龜城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61	31	30	15	9	24					
姓 氏 (戶)										
計	金氏	朴氏	鄭氏	吳氏	趙氏	陳氏	安氏	李氏	姜氏	其他
24	6	3	2	2	2	1	1	1	1	5

□ 마을形成

年代未詳의 時代에 卞氏가 入村하여 陶磁器를 구었다고 하나 後孫은 없고 約 150年前 竹山人 朴鎭塾이 光山 林谷面에서 移住 5代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마을 뒤로 牛谷城이라는 古城址가 있어서 地形을 좇아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장승이 서있는 벽수거리였기 때문에 장승백이, 장승물, 장선동, 장성동(長城洞)으로 訛流口傳된 것이라고도 하는

데 郡面 併合때 雙龜洞과 長城洞이 合併되어 龜城里로 改稱되고 그 2區가 됨.

◎ 산수동(山水洞) 마을(彌山一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66	30	36	21	2	23					
姓 氏 (戶)										
計	趙氏	裴氏	鄭氏	金氏	郭氏	氏	氏	氏	氏	其他
23	8	7	4	3	1					

□ 마을形成

天安人 全夏進이 鎭安 馬靈에서 入住 定着하여 8代에 이르고 있다. 그 後 南平文氏, 慶州鄭氏가 같은 무렵 入住 定着하여 7, 8代에 이르고 있으며 牛谷面 彌勒洞이던 것을 1914年 彌山里로 改稱하였다.

□ 地名由來

風水地理說에 따르면 마을 뒷산이 쥐(鼠)穴이어서 山鼠洞이라 하던 것을 山紫水명한 곳이니 山水洞으로 고쳐 불렀다 함.

◎ 번디물 마을(彌山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94	48	46	22	2	24					
姓 氏 (戶)										
計	李氏	金氏	羅氏	鄭氏	張氏	全氏	申氏	姜氏	高氏	其他
24	6	4	3	2	2	2	1	1	1	2

□ 마을形成

年代를 알 수 없는 아주 오랜 옛날에 權氏들이 터를 잡고 繁盛하였으나 分散되어 없으며 그후 約 250年前 山水洞으로 入住한 天安 全夏進의 後孫이 代를 이어오고 있다.

地名由來

갈마지기(양정지들)에 權氏들이 富裕하게 100戶 以上 살며 繁盛했기 때문에 “權多몰”이라 불렀으나 마을은 廢村되고 子孫들은 分散되고 말았다 한다. 그 후 約 250年前 現位置에 마을이 形成되면서 “권다몰”과 어음이 비슷하게 “번다몰”로 訛傳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음.

◎ 미륵동(彌勒洞) 마을(彌山3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家	非農	計					
99	48	51	20	5	25					
姓 氏 (戶)										
計	金氏	尹氏	姜氏	白氏	吳氏	洪氏	陳氏	宋氏	氏	其他
25	10	5	4	2	1	1	1	1		

마을形成

1, 2區와 같다.

地名由來

마을 周邊에 절이 많아 “彌勒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함.

谷城 郵遞局 現況

1. 沿革

- 1905. 6. 6 谷城 臨時 郵便所 開所
- 1949. 12. 15 谷城郵遞局으로 改稱
- 1971. 12. 15 事務官局으로 昇格
- 1988. 2. 1 郵便 直轄結局

2. 組織

官署數	5 級 官 署	6 級 官 署	別 定 局	郵便取扱所	備 考
	1 局	5 局	5 局	1 個所	
11局	谷 城 (庶務係, 指導係, 郵便係, 預保係)	玉果, 石谷 古達, 木寺洞 兼面	竹谷, 梧谷 三岐, 立面 梧山	谷城鴨綠	

3. 定員 現況

區 分	一 般 職	技 能 職	小 計	別定局職員	合 計	備 考
定 員	24	54	78	27	106	保險管理士:5
現 員	24	55	79	26	106	
(自 局)	(12)	(26)	(38)		(38)	
과 부족		+ 1	+ 1	- 1		

※ 기능직 정원상 +1은 입면국 기능직 집배원(8) 철수하고 집배3종 정원 증가(+1)로 인한 차임임.
현원은 변동 없음.

4. 소속관서별 개국년월일

소속관서명	우체국종별	개국년월일	소속관서명	우체국종별	개국년월일
곡 성	사무관	1905.12. 1	죽 곡	별 정	1966.10.10
옥 과	주 사	1919. 2.21	오 곡	〃	1966.10.10
석 곡	〃	1934.10. 1	삼 기	〃	1964. 8.15
고 달	〃	1966.12.31	입 면	〃	1963. 5.31
목 사 동	〃	1966.12.31	오 산	〃	1966.12.31
검 면	〃	1966.10.25			

谷城 電話局 現況

1. 연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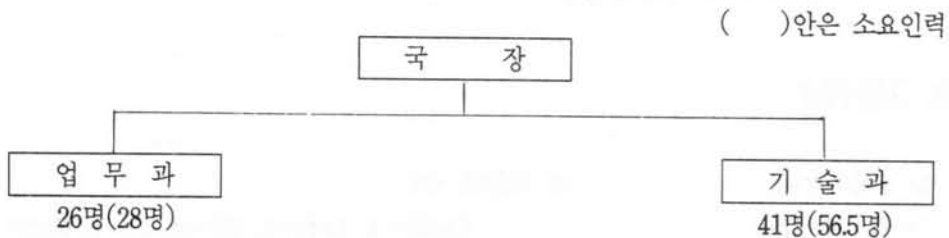
- 1919. 4. 16 곡성우편소(전신업무취급 개시)
- 1934. 1. 15 저석식 50회선 시설, 교환업무취급 개시
- 1976. 12. 12 공전식 600회선 방식변경
- 1982. 1. 1 한국전기통신공사 광주지사 곡성사업소로 개소
- 1983. 1. 1 곡성전신전화국으로 개국
- 1983. 4. 24 자동식(EMD) 2,000회선 개통
- 1984. 3. 24 자동식(EMD) 400회선 증설 개통
- 1986. 9. 30 전자교환기(AXE-10) 7,040회선 개통(광역화)
- 1987. 11. 1 전자교환기(AXE-10) 1,280회선 증설 개통
- 1989. 9. 11 전자교환기(AXE-10) 2,560회선 증설 개통
- 1990. 2. 3 전자교환기(AXE-10) 5,120회선 증설 개통
- 1991. 11. 1 전자교환기(AXE-10) 1,920회선 증설 개통
(EMD 2,400회선 철거)
- 1993. 3. 18 전자교환기(AXE-10) 512회선 철거(재배치)

2. 임 무

-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전기통신시설의 유지보수
- 전기통신에 관한 영업

3. 편제 및 인원

• 편 제



* 총소요인력 : 84.5명(본부조정분)

* 총원율 : 79.3%

7. 전기통신시설

• 가입전화

(’94. 12월말)

구 분	시 설 수		가 입 자 수			수용율 (%)	비 고
	회 선	구성비	일 반	공 중	계		
AXE-10 전자교환기	17,152	100%	14,284	471	14,755	86.02%	

• 공중전화

(’94. 12월말)

설치대수	카드사용	무인 DDD	관리 DDD	비 고
471	165	61	245	

• 전용회선

(’94. 12월말)

구 분	계	전 화	FAX	데이터
계	233	172		61
시내 전용	217	159		58
시외 전용	16	13		3

• 지역별 수용현황

지역별	가구수	가 입 전 화		공 중 전 화 (재계)					
		시설수	가입자수	시설수	계	관리DDD	무인DDD	카드	표시형
총 계	13,306	17,152	14,755	626	471	245	61	165	
곡 성	3,682	5,632	5,125	160	151	62	25	64	
압 록	504	640	502	38	30	19	2	9	
고 달	705	768	639	24	11	7	1	3	
겸 면	921	896	744	32	20	7	4	9	
목사동	817	768	578	30	21	17	2	2	
삼 기	949	1,152	987	62	29	20	3	6	
석 곡	1,363	2,048	1,837	64	42	21	4	17	
오 산	731	896	707	32	27	17	4	6	
죽 곡	947	512	396	32	23	17	1	5	
옥 과	1,491	2,304	1,974	88	64	29	7	28	
입 면	1,254	1,536	1,266	64	53	29	8	16	
원 달	283	384	261		5	1	1	1	

* 수용율은=가입전화+공중전화

* 분기국사 원달(L/C)은 재계(곡성에 포함)

내 고장을 빛낸 사람들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申崇謙)

—그 대사정신(代死精神)을 추모하면서—

신승겸(申崇謙)은 고려초에 고려태조 왕 건(王建)과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후삼국(新羅後百濟 後高句麗)을 통일하고 고려 475년의 왕업의 기초를 세운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서 곡성이 낳은 (全羅南道谷城郡木寺洞面九龍里出生)충신이요 공신이다.

왕 건 태조가 평산(平山)으로 사향(賜鄉)하였고 장절공(壯節公)이라 사호(賜號)하셨다.

당시의 국내사정을 보면 신라말기로서 나라살림이 잘되지 못하여 여러가지 정치가 문란하여지고 백성들은 도탄(塗炭)에 빠져 살림살이가 어렵게 되어 사방에서 도적이 일어나 수습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영웅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각기 세력을 다투어 나라를 세우고 임금에 되니 그 가운데 견훤(甄萱)이 세운 후백제며 궁예(弓裔)가 세운 후고구려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국이 신라와 합해서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가 되었다.

이때 왕건태조는 신승겸(申崇謙) 배현경(裴玄慶) 복지겸(卜智謙) 홍유(洪儒)등과 같이 궁예 밑에 장군으로서 활약하였으나 궁예왕은 의심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으로서 그 행패가 심하여 자기 처자를 죽이고 신하를 죽이고 백성을 함부로 죽이고 그 미친 태도는 말할수 없이 무섭고 대궐과 정치는 형편 없었다. 이때 수상(首相 侍中)으로 있던 왕건(王建)이 날마다 인망이 높아지며 덕망이 있어서 결국 앞의 4장군의 추대를 받아 드디어 왕건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모시고 궁예를 추방하였다. 이것을 역성혁명(易姓革命)이라 하여 의거(義舉)를 일으키니 이에 호응하는자 그 수가 많았으며 환영하는 군중이 궁문까지 달려와 맞이하였다 한다.

궁예는 할수없이 쫓겨나 미복(微服)으로 궁성을 빠져나가 산골짜기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백성에게 평강(平康)들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궁예는 나라를 세운지 불과 18년에 자기가 자기무덤을 파는 포악무도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때가 바로 서기 918년 6월 14일 을묘(乙卯)일이요 즉위식은 그 다음날인 6월15일 병진(丙辰)일에 거행되었다. 그때 왕건의 나이 42세로서 아주 장년이었으며 신승겸과 같은 동갑이요 또 체격이나 용모가 비슷하였다 한다.

여기 혁명의 날의 실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때는 여름이라 낮에 여러장군(앞의 申, 裴, 卜, 洪)들이 왕건의 집을 찾았다. 왕건은 여러 장수가 찾아온것이 심상치않아 부인 유씨(柳氏)와 앉았다가 부인더러

“밖에 오이가 컷을터이니 가서 몇개 따오시오” 하고 부인을 내보낸 다음 여러장수들이 앉아서 심각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시중(侍中)께서는 어둠을 폐하고 밝음을 세우는 옛부터 있는 일이니 지금 주상(궁예)은 날로 무도행패하여 정치는 어지러워지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나라가 위태로우니 시중께서는 이 기회에 옳은 깃발을 드시도록 하는것이 좋겠오이다” 하고 네분장수가 권하였다. 그러나

“어찌 감히 신하로서 임금의 폐하고 그 자리에 오르면 뒷날 나를 무어라 하겠오” 하고 사양하였다. 그러나 여러번 권하며 현실정을 이야기해 가는데 밖에 나갔던 유씨부인이 여러 장군이 모이는 것이 심상치 않아 옆에 방에서 듣고 있다가 나오면서,

“여러 장군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오. 옛날의 일을 생각하고 지난일을 생각하니 바로 이때가 대장부로서 일어설 때인가 하옵니다. 여자로서 감히 참견할 일은 아니로되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니 어찌 부녀자라 하여 의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며

방에 들어가 갑옷을 갖추어 입히고 여러 장수들을 밖으로 뒤희고 나가 벼섬(稻)위에 오르시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군신의례(君臣儀禮)를 베풀니 6월14일이라 내외에 의기를 드높이였다.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高麗)라 하고 도읍을 송도(松都)로 옮겨 정치하였다.

차차 국세를 늘려 근방을 정복하고 건훤이 세운 후백제군과의 싸움이 팔공산(八公山)에서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이때 여러 겹으로 포위를 당한 왕건태조의 신변이 아주 위태로왔다.

신승겸장군이 이 광경을 보고

“주상께서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어의 어차(御衣 御車) 즉 임금의 옷과 수레를 주십시오” 하고 주상을 숲속에 숨기고 신장군이 대신 거짓왕으로 싸움을 하다가 아깝게도 전사를 하였으니 그 만고충성은 높이 영구히 받들것이지만 그 대사(代死)정신 즉 임금을 가림하여 죽는다는 그 희생정신, 호국정신, 건국정신을 길이길이 추모 숭모하여야 할 것이다. 신장군이 아니었던들 고려 500년 역사는 판도가 바뀌어 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전국각지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도 지내나 여기 곡성에서는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덕양사(德陽祠) 덕양서원(德陽書院) 동 목사등면 용사리 용산재(龍山齋) 등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뒤 장군단(將軍壇)에서 매년 차례를 본손 유림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지내고 있다.

여기 유물 유적 설화등은 편을 달리하여 설명하기로 하고 단 곡성의 수호신 성황신(城隍神)으로 모시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생각해 보자.

강절공의 대사정신, 구국정신, 호국정신, 봉사정신, 애국정신, 희생정신 등 애국정신을 몸소 실천 이행한 점에서 오늘이 우리나라 민족 국토의 애호사상에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서 국가의 부흥 민족의 융성 국토의 보전에 임하여야 할 것을 다짐하여 보자는 것이다.

사직(社稷)의 위(危)를 구한 충정공 마천목(忠靖公 馬天牧)

—제2왕자란때 역신 박포(朴苞)를 잡고—

곡성에서 석곡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가자면 석곡면 방송리 통명산(通明山) 기슭 양지쪽 계좌(癸坐)에 위연(威然)한 묘(墓)에 간단한 석물을 갖추고 비가 세워져 있으니 이가 곧 충정공 마천목장군(忠靖公馬天牧將軍)의 묘소(墓所)다. 옆에 비각이 있고 신도비(神道碑)가 있어 마 장군의 경력이 새겨져 있고 조선조 500년의 역사를 말하여 주는듯 하다.

마천목장군은 신체가 강건하고 재주가 뛰어나 모든 서적에 능통하였다. 어려서부터 효도(孝道)할 마음이 지극하여서 부모님을 항상 정성껏 받들어 모시므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었다.

지금 섬진강(蟾津江)가 침곡리에 도깨비살이 있는데 이것이 유명한 마장군의 도깨비살이다.

하루는 아버님께서 한 겨울에 물고기 잡수고 싶으시다고 하니 이 추운 겨울에 냇가에 가서 어찌하느냐 하고 강가에서 걱정을 하였더니 하루저녁에 도깨비들이 “살”을 막아주어서 고기를 잡아 아버님께 봉양하였다. 그 살이 지금 500년 후도 여전히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할 일이다. 역시 하늘이 낳으신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마천목장군은 당시 조정에서 왕자의난(王子亂)이 두번이나 일어났는데 제2차 왕자란때 넷째 형인 방간(芳幹)이 박포(朴苞)와 같이 난을 일으키자 이때 마천목장군이 박포를 잡아베어 난을 평정하였다. 이리하여 위태로운 사직(社稷)을 구하였다. 그리하여 좌명공신(左命功臣) 동지총제(同知總制)로 상장군(上將軍)이 되고 나주목사(羅州牧使) 전라병사(全羅兵使), 병조판서(兵曹判書), 보국숭록대부 장흥부원군(輔國崇祿大夫長興府院君), 판돈녕부중추원사(判敦寧府中樞院事)까지 지내시다가 병진(丙辰)해 1월 25일 65세를 일기로 마쳤다.

속담에 통명산정기(通明山精氣)로서 곡성에 장군이 많이 날것이라고 하여 신숭겸장군(申崇謙將軍) 마천목장군(馬天牧將軍) 같은 분이 나오게 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마천목에게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위대한 인물, 위대한 장군들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지극한 효도를 하므로써 커다란 인물이 된다는 것이다.

항시 부모 가정을 떠나서는 무슨 일이고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내품을 닦고 집안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충정공정신(忠靖公精神)을 깊이 숭모(崇慕)하여 길이 그 명복을 빌어야겠다.

금산전(錦山戰)에서 장렬히 전사한 월파 유팽노(月坡 柳彭老)

-월파(月坡)의 애마(愛馬) 의미총(義馬塚)도 숙연하다고-

옥과(玉果)에서 옥과천을 따라 무창리(武昌里)를 지나 옥과천 하류 합강리(合江里)에 다다른다. 이 합강리마을 가운데 초라하게 서있는 합강사(合江祠)가 쓸쓸하게 있고 옥과천 건너 송전리(松田里)에 외로이 의미총(義馬塚)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월파 유팽노장군의 부인 원주김씨(原州金氏)를 모신 자리로 애마요 의미(愛馬, 義馬)의 말 무덤이다.

월파장군은 나면서부터 영특하고 부모에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과 도의(道義)로써 사귀며 사마 양시(司馬兩試)에 합격하고 문과(文科)에 올라 홍문정자(弘文正字) 및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까지 지냈다. 그후 늙으신 부모님을 뵈시기 위해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에 돌아오는 지극한 효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조정에 소장을 올려 논하니

“우리나라의 걱정에 북쪽이 편안하면 남쪽이 걱정이요, 남쪽이 편안하면 북쪽이 걱정이라. 그러나 북쪽이 걱정이면 전하 및 신하들은 같이 보지도 않고, 남쪽이 걱정이면 일이 급해도 전하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중봉 조헌(重峰 趙憲)의 상소와 같이 왜승(倭僧) 현소(玄蘇)가 우리나라에 온것을 사람들은 “일없이 왔다 일없이 간다” 하니 신은 “할일 있어 왔다가 할일 있어 갔다”고 하여 청컨대 살피소서” 하니 이는 지금의 간첩행위와 같아 이로 인하여 적군이 대거 들어올 것이라 나라의 장래를 크게 걱정하였다.

1592년 임진(壬辰) 4월 13일 왜군이 대거 부산에 상륙하여 부산동래(釜山 東萊)을 함락시키고 한달이 못되어 서울 평양까지 진격하니 참으로 한심하도다. 우리나라의 무방비 상태를 어찌할줄 모르고 그저 남의 힘만 빌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 강산을 하루아침에 짓밟힐지언정 우국지사 애국지사가 사망에서 의병(義兵)을 이르켜 나라를 구하니 곡성의 월파 유팽노의병장(月坡柳彭老 義兵將)이 의기(義旗)를 드니 한달이 못되어 500여명 이상이 모이는지라. 드디어 양대박(梁大樸)과 같이 합사(合師)하여 담양에 가서 제봉 고경명(靈峰 高敬命)을 맹주(盟主)로 의병장(義兵將)을 삼고 금산싸움(錦川)으로 나아갔다. 왜군들은 호남의 요새지 전주(全州)를 치고자 금산에 진을 쳤던 것이다. 고경명을 대장으로 모시고 왜군과 싸우니 적은 우리의 후속부대가 없는줄 알고 치열한 반격을 가해와 유장군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 나왔으나 제봉대장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신변이 대단히 위태로웠다. 그때 월파장군은 대장을 구하려고 적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이때 마부 김충남(金忠男)이 말고삐를 잡고 만류하니 장군은

“내가 대장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느냐?” 하며 말고삐를 잡은 충남의 팔을 칼로치고 가려고 하니 충남은 다시 왼손으로 말고삐를 잡으니 다시 왼손마저 쳐버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두겹 세겹으로 에워싼 가운데 힘껏 싸우다가 아깝게도 전사하였다.

이 싸움에 고경명 부자가 다함께 순절하니 그 위국충절(爲國忠節)은 만고에 빛날것이로다.

의마사실(義馬事實)과 부인 원주김씨(夫人原州金氏)에 대하여는 별장에서 다시 쓰기로 하고 신 승겸장군(申崇謙) 마천목장군(馬天牧) 유팽노장군(柳彭老) 등 곡성이 낳은 또는 곡성을 빛내어 주신 유명한 삼장군(三將軍)이시다.

장절공정신, 충정공정신, 월파공정신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요, 또 잊을 수 없는 곡성의 수호신(守護神)이신 것이다.

張夢世(1562~1597)

- 本貫: 興德 · 字: 乃秀 · 官: 贈副司直 · 父: 輔元
- 祖: 震禧 · 顯祖: 英(中郎將)

公은 壬辰왜란때 忠武公 李舜臣 幕下에서 龜船突擊將으로 공이 커서 軍官에 올랐으나 벼슬을 버리고 歸鄉하였다.

다시 丙子호란때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전 하였으나 병으로 귀향하여 84세에 卒하니 仁祖 23年(1645)에 禦侮將軍 忠武衛副司直에 추증되었다.

宣武功臣公遺蹟碑文

粵若稽古宣廟壬辰干城之才股肱之良不爲不多惟湖南忠義之士奮忠敵愾冒矢衝石赴湯蹈火忘身報國者昭著勳錄而若張公夢世尤表表可稱焉公後孫相基以公忠義躋蹟懼夫而湮沒請予以劄石壽傳之文公諱夢世字乃秀興城張氏以高麗廣評侍郎諱儒爲肇祖是生戶部尙書諱延祐以勳贈左僕射諡忠肅自後奕葉簪組入我朝守門將諱允儉寔厥曾王考王考諱震禧有孝行考諱輔元妣慶州李氏以明宗壬戌生公自少好讀兵書精通武藝勇力絕倫當穆陵壬辰之難與鄭公麒壽倡義旅同赴李忠武幕府斬馘者多李公嘉之爲龜船突擊將仍命詣得義使金公千鑑軍中晉州將陷公謂鄭公曰徒死無益遂泅南江同歸李公陣閑山倭橋之役勞動不少啓聞于朝特授宣傳官登于勳籍晚年卜築山水間無意仕進矣及長陵丙子健虜入寇公年七十五而忠勇無異少壯遂杖劍赴召疇庵鄭公弘溟歎曰忠義雖可敬其如年晚何哉未幾果得病歸還而虜與我平矣公憤懣彌中如不欲生乃於壁上書大明乾坤以寓風泉之思享壽八十四而卒仁祖乙酉九月二十二日也以勳贈禦侮將軍忠武衛副司直墓長興天冠山守酌洞子坐而有碑銘封配淑夫人金氏籍彥陽護軍淵重其父也墓用魯禮男處賢孫男泌曾孫仁鉉玄孫春復始生三男德敏義敏繼敏盡天龍蛇之變國幾不國公以一布衣奮不顧身衝冒矢鏑以救君父之急亂已還山功不自伐迨虜氛之起公已衰而尚有扞禦之誠若非溟明於義理則豈能若是乎嗚呼賢哉銘曰 義炳春秋忠貫日月大名長存直氣不沒

戊子孟夏

安東 金 窰 漢 撰

〈역 문〉

粵若히 古宣廟壬辰을 상고하니 干城의 才와 股肱의 良이 不多함이 아니런마는 오직 湖南忠義의 士가 奮忠하고 敵愾하야 矢를 冒하고 石을 衝하야 赴湯하고 蹈火하야 身을 忘하고 國을 報한者 勳錄에 昭著하니 張公夢世같은이 더욱 表表하게 可히 稱할지라 後孫에 相基가 公의 忠義躋蹟 으로서 湮沒할까 두려하여 予에게 劄石壽傳의 文으로서 請하니 公의 諱는 夢世요 字는 乃秀니 興城張氏가 高麗廣評侍郎諱儒로써 肇祖를 삼으니 是生戶部尙書諱延祐하니 勳으로서 左僕射

를 贈하고 諡를 忠肅이라하니 自後로 奕葉히 簪組하고 我朝에 入하여 守門將諱允儉은 寔히 公의 曾王考라 王考의 諱는 震禧니 孝行이 有하고 考의 諱는 輔元이니 妣는 慶州李氏라 明宗壬戌로써 公을 生하니 自少로 兵書를 읽기 좋아하여 武藝를 精通하고 勇力이 絶倫하여 穆陵壬辰의 難을 當하여 鄭公麒壽로 더불어 義旅를 倡하여 함께 李忠武幕府에 赴하여 斬馘한 者만하니 李公이 嘉之하여 龜船突擊將을 삼고 仍하여 命하여 倡義使金公千鎰의 軍中에 詣하니 晉州가 將次陷城될때 公이 鄭公다려 말하기를 徒死하면 無益이라하고 드디어 南江을 건너 함께 李公陣에 歸하여 閑山倭橋의 役に 勞勳이 不少하여 朝廷에 啓聞하니 特히 宣傳官을 授하여 勳籍에 登하니라 晩年에 山水間에 卜築하여 仕進의 뜻이 없더라. 및 長陵丙子에 健虜가 入寇함에 公의 年이 七十五인데 忠勇이 少壯時와 無異한지라 드디어 杖屨하고 赴召하니 畸庵鄭公弘溟이 歎하여 曰忠義는 비록 可敬하나. 該年晩한대었지 할고 얼마못하여 果然히 病을 얻어 歸還하니 虜가 우리와 더불어 和平함에 公이 憤懣이 彌中하여 살고자 아니한다 하여 壁上에 大明乾坤을 써서 風泉의 뜻을 寓하니라. 享壽가 八十四에 卒하니 仁祖乙酉九月二十二日也라. 勳으로써 禦侮將軍忠武衛副司直을 贈하다. 墓는 長興天冠山守酌洞子坐니 碑銘이 有하니라. 配는 淑夫人을 封하니 金氏라 籍은 彥陽이니 護軍淵重은 其父也라 墓는 用魯禮하다. 男은 處賢이요 孫男은 泌이요 曾孫은 仁鉉이요 玄孫은 春復이라 始에 三男을 生하니 德敏義敏繼敏이니 盡夭하다. 龍蛇의 變에 國이 거의 國지 못하거늘 公이 一布衣로써 奮不顧身하고 矢謫을 衝冒하여서 君父의 急亂을 救하고 이미 還山하여 功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虜氛이 起할때에 믿어 公이 이미 衰하였으되 오히려 扞禦의 情誠이 있으니 萬若깊이 義理에 밝지 아니하면 어지 能히 이같이 하리오 嗚呼라 賢하도다 銘曰 義가 千秋에 炳하고 忠이 日月을 貫하니 大名이 長存하고 直氣가 不沒하리리다.

愛國忠節의 故梁遠謨

(곡성군 목시동면 평리 196번지)

1905年 乙巳 國恥條約에 依한 國權의 喪失을 恨歎 國內各處에서는 義憤을 참지 못한 靑壯年들은 地域 골골마다 蜂起 糾合 倭憲兵과 닳치는 대로 습격 戰果를 올리는데 우리고장 木寺洞面에도 昇州郡 松光面 大谷里 趙圭夏 접주가 本百仙住山(해발600고지 周邊東南은 昇州郡 月灯面 黃田面 昇州郡 住岩面 北西는 谷城郡 竹谷面 木寺洞面)에다 據點을 잡고 各處에서 모여오는 義士들을 糾合 倭憲兵을 없애고자 養兵訓練을 하는데 여기에 所要되는 物資一切을 地方에서 補給이 아니고는 하루도 活動을 못할진데 이의 뒷받침을 누가 하리오 當然 그地域 坊長이 管内 村落의 여러 洞首와 相議 配定 收合 秘密히 밤으로만 約定한 場所로 가져다 놓게 하고 낮에는 敵의 動態를 隨時 把握 洞首 申普永과 本里 柳駿基로 하여금 連絡을 하여주는데 1909年 陰8月初 求禮駐屯倭憲兵隊員 七名이 義兵을 搜索次 本面을 向

하여 오는것을 趙圭夏 盧仁宣(琳壽) 義兵部隊에 提報 先攻케 함으로써 本面仙住山에서 全員 섬멸케 하였으나 敵에게는 알리지 않하였든바 그로부터 三日後 求禮憲兵隊에서는 連絡이 끊긴 搜索隊의 行方을 찾으려 數百名의 大部隊가 本面으로 向하여 음을 알고 先通 치열한 戰鬪가 展開 義兵들의 決死的인 先攻으로 初勢는 좋아 數十名의 人命被害는 줄었으나 戰鬪에 있어서의 人員과 裝備의 不足으로 結局 敗戰을 當하여 趙圭夏 義兵將은 愛國忠節의 一生을 여기에서 마치게 되고 盧仁宣과 살아남은 義兵들은 빨빨이 흐터지고 말았음. 其後 趙 將軍의 遺骸는 仙住山下 本面坪里山3番地에 暗埋葬 申請人三代가 81年間 伐草 守護를 하여오다. 1988年 10月 12日 國家에 敍勳되어 大田 第二國立墓地로 移葬 奉安하였음.

倭兵들은 이戰鬪에서 많은 被害와 前搜索兵의 屍體七具를 發見하니 더욱 憤怒 報復의 手段으로 仙住山下 隣近 村落을 急襲 義兵들을 도와준 罪目을 씌워 無差別 마을사람을 射殺하려고 한것을 알게된 公은 一身의 죽음을 각오하고 戰傷義兵을 먼저 가리나무동 속에 隱身케 하고 倭兵들에 달려가 農民이야 銃劍을 가진者 或部落을 지나다 먹을것을 強要하면 不得已한 일이니 奈何오 그들의 不當함을 指摘하면서 愚昧하고 무고한 農民의 處地를 辨明 하였든바 倭將은 怒氣衝天하여 坊長으로서 協助는 고사하고 自己들의 處事에 反對한것은 必是 反徒와 意合 排日運動에 加擔한것이 分明하다고 只今까지 叛反事實을 實吐하라고 발을 묶고 거꾸로 나무에 매어 달고 가혹한 매질을 하였으나 始終 本坊民은 한사람도 加擔이 없고 他郡地處에서 모여와서 모른다 하고는 끝까지 否認하다 드디어 혀가 빠지고 氣絶 숨이 지니 끌어 내리고 바지계에 올려 求禮로 向하여 本面龍司里 司堂 마을에 이르자 義兵一名(柳元重)을 生捕하여 오니 屍體를 땅에 내리고 코와 앞에 통의 물을 부어도 아무 反應이 없고 그때 날이 어두워 불을 태웠는데 또 그불덩이를 가슴과 배에 갖다 놓아도 아무 동정이 없으니 죽음을 인정하고 머리의 상투를 잘려 던지고 生捕 義兵만 끌고 求禮로 갔는데 後日 死刑을 當하였다 한다.

倭兵이 撤收後 洞首 申普永과 柳駿基 等 部落民과 같이 公의 몸에 불덩이를 해치고 등에 업어 집으로 와서 蘇生을 爲하여 갖은 精誠을 하여 간신히 脈이 돌아오니 날이 밝기전 山넘어 帆溪里 孫氏外家宅으로 옮기고 二十餘日을 祕密히 治療하다가 다시 人夫 三名으로 夜間을 利用 竹谷面 鳳亭里 通明山峙을 넘어 本郡 梧谷面 德山里 柳善卓 宅으로 낮에는 쉬고 또 밤에 南原郡 水旨面 山亭里 南原梁氏祭閣으로 옮기어 一年餘를 治療 다시 南原郡 周生面 上洞里 日彥部落 梁文鎬 親戚宅에서 半年間 隱身 治療中 同里 尹校理 祥燮翁이 慰問曰 壯哉라 그대여 一身의 特牲으로 數千面民이 禍를 免하여 生命을 保全 하였으니 以上 더 壯快함이리오 하고 極口讚揚 慰撫 致賀하였다 한다. 그러나 모진 打撲傷의 餘毒으로 步行조차 如意치 못하여 再起 復讎치 못하고 庚戌合邦을 當하니 憤痛을 참지 못하여 杜門不出 世上을 恨歎하다 別世하니 公의 愛國心과 義蹟을 이는 鄉民들은 一身의 犧牲으로 全面民이 禍를 免하게 된 功勞와 그 愛國忠節의 義氣를 높이 받드려 祖國 光復後 義蹟碑를 面民의 이름으로 建立 永久不忘 稱頌하며 追慕하고 있다.

이와같은 愛國的 業績은 마땅히 國家的 次元에서 높이 評價되고 認定 되어야 함에도 햇빛을 못보고 있으니 政府 次元에서 褒賞으로 公의 넋을 달래주길 기대하며 本誌에 담아 자랑코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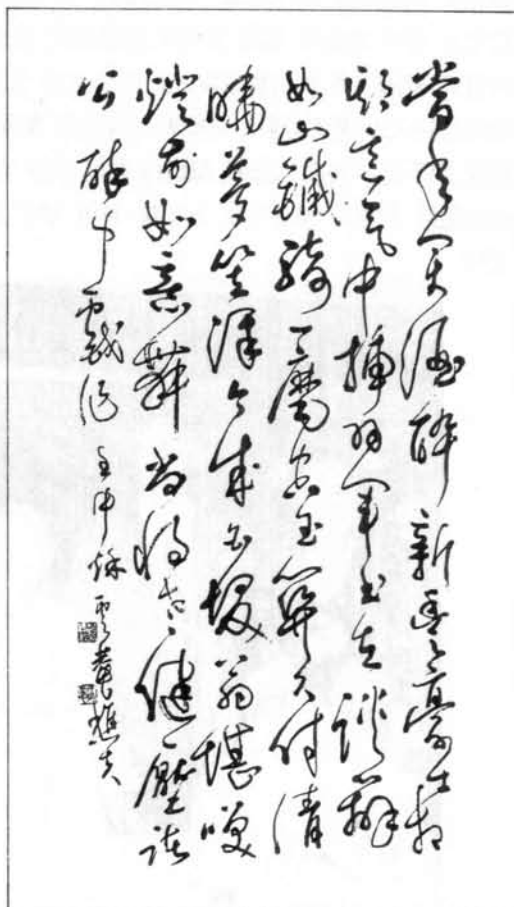
書藝家 雲菴 趙鏞敏



谷城郡 竹谷面 出身으로 우리나라 書藝界 元老로 後進養成과 書段의 中堅으로 活潑하고 있다. 先生은 多少 늦게 書段에 入門하였지만 國展大韓民國美術大展入特選等 各種公募展에서 頭角을 나타내어 書藝界에 큰 感흥을 주었다. 階, 行, 草, 藝, 篆書等 各體를 두루 잘쓰시지만 書體의 극치인 行, 草書는 남들이 흉내낼수 없는 卓越함을 認定 받는다. 特히 東亞日報社에서 격年制로 實施하는 東亞美術祭에서 書藝人으로는 最高賞인 東亞美術賞을 光州 全南 地域에서 1989年 처음으로 受賞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晩學의 書藝家 雲菴 趙鏞敏 等の 題目으로 TV, 新聞 放送으로 크게 報導된바 있었으며 光州 藝術의 거리에 雲菴 書藝院을 두고 作品, 創作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

■ 略歷

- 松谷 安圭東 先生 師事
- 國展 및 大韓民國 美術大展 入選 및 特選
- 東亞美術祭 東亞美術賞 受賞
- 谷城郡 文化賞 受賞
- 國立現代美術館 招待作家
- 大韓民國 書藝大展 審査委員 歷任
- 全羅南道 美術大展 招待作家 同 審査委員 運營委員 歷任
- 光州廣城市 美術大展 招待作家 同 審査委員 運營委員 歷任
- 無等美術大展 招待作家 同 審査委員 運營委員 歷任
- 京畿道 書藝大展 審査委員長 歷任
- 全羅北道 書藝大展 審査委員長 歷任
- 忠清北道 書藝大展 審査委員長 歷任
- 慶尙南道 書藝大展 審査委員長 歷任
- 大田廣城市 忠清南道 書藝大展 審査委員長 歷任
- 大邱廣城市 書藝大展 審査委員長 歷任
- 全國書道民展 審査委員 歷任
- 個人展 1982, 1994
- 韓國書藝協會 理事·光州 支部長
- 全南專門大學 講師
- 雲菴書藝院 運營



醉中數作 69×135

李相俊의 古典舞踊

本 籍: 谷城郡 木寺洞面
 學 歷: 光州師範學校卒, 서라벌藝術大學校卒
 經 歷: 南道藝術高等學校講師 7年
 師團法人 韓國舞踊協會 全南支部長 1,2,3代 被選
 舞踊研究學院經營 37年



무용인 이 상 준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108호

李相俊은 家風이 頑固한 星州 李氏집안의 4男4女中 막내아들로 태어나 서라벌藝大를 卒業后 國校教師와 順天女中 講師를 거쳐 靑雲의 뜻을 품고 日帝 36年동안 사라져간 우리나라 唯一의 古典舞踊에 脈을 잇고자 父母兄弟의 만류를 눈물로 뿌리치고 舞踊研究學院을 開設하여 經營中 서울 圓覺社 發表會를 始作으로 서울시公館 및 서울藝術劇場 發表會를 갖었던 結果 韓國藝總으로부터 認定을 받아 1968年 臺灣 文化院 招請公演, 在日居留民團 本部 招請公演과 日本 全國 巡廻 公演을 마쳤고 韓國代表 民俗舞踊團으로 엑스포70 日本 오오사카 出演을 마쳤으며 其外 世界 50個國의 招請公演으로 國威宣揚에 貢獻한 李相俊은 舞踊家 同僚들로부터 無形文化財 指定의 勸誘를 斷乎히 拒絕 門下生中 現在 大學校 舞踊科 教授 또는 京鄕 各地에서 散在하여 舞踊指導者로 活動하고 있음. 40余星霜 忍苦의 보람으로 느낀다 하며 남은 餘生 오로지 古典舞踊 傳承 保存에 이바지 하겠다 한다.



〈영국 초청 공연시 런던시장과 리셉션 장면〉

韓炳文의 烙竹粧刀

本籍: 谷城郡 木寺洞面 拱北里
住所: 上 同
學歷: 國卒, 漢修
經歷: □전국대회시마다 수차 특선한바 있었으며,
□문화부 장관상 수상
□19회 동아 공예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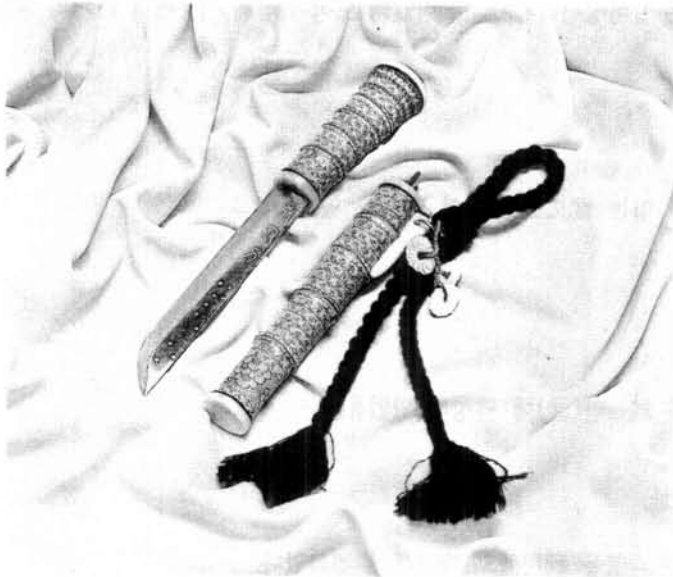
孤雲 韓 炳 文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제60호

全南 谷城郡 목사동면 공북리에 거주하는 韓炳文씨는 烙竹粧刀를 만드는 분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 名脈을 유지하고 있다. 종조부 韓基東씨로부터 13才때 부터 25才까지 그 技法을 배웠다.

烙竹은 대나무의 표면에 인두로 글씨나 무늬를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그 무늬는 구름·산수·사슴·매화·난초·다람쥐·왕새우·대나무·포도넝쿨 등이고 그 글씨는 漢詩가 主를 이룬다. 대나무 材料는 2·3年 자란것들 중에서 쓸만한 작은것은 산골짜기 척박한 땅에서 힘겹게 자란것들 중에서 고른다. 쇠로된 칼도 대장간 같은데서 부탁해다가 쓰지 않고 직접 쇠를 달구어 두드리고 갈고 해서 만든다.

烙竹粧刀는 먼 옛날 사대부들의 호신용으로 또는 양반들 규방규수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앞으로 烙竹粧刀가 傳統을 이어가기 위해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서 余生을 몸바치겠다 한다.



谷城(옛) 城터

敵을 막기 爲하여 흙이나 돌로 높이 쌓은 큰 담을 '성'이라 하고 그성이 있던 자리를 '성터' 혹은 '성지'라고 한다. 우리 곡성에는 10군데 성지가 있는데 具體的으로 把握 못했으나 아는대로 우선 拔取해 본다.

(1) 胎峰城址

谷城邑과 三岐面 境界에 있고 石城인데 대부분 붕괴되었다. 1950년 10월 이 胎峰에다 戰鬪 고지를 지었는데 땅속 1.5m에서 뚜껑 덮여있는 그릇을 파냈다 한다.

전설에 따르면 백제때 왕자의 태를 묻었던 곳이라 하여 태봉산이라 부르고 있다.

(2) 堂洞城址

竹谷面 堂洞城인데 약간의 흔적이 있으며 石城이다.

대부분이 붕괴되었고 瓦片이 산재되어 있다. 中央部에 우물址와 望臺址가 있었다 한다.

(둘레 500間)

(3) 老姑城址

古達面 古達里에 있는데 약간 흔적있는 石城이다.

高麗때 쌓은 城으로 어떤 노파가 老後에 大事業으로 이城을 치마에 둘을 담아 날라다가 쌓았음으로 한미성 혹은 할미성이라 하고 또 이當時 도적이 심해 이곳에다 근처의 쌀을 모았다는 說傳이 있다.

(4) 竹林城址

玉果面 竹林里에 있는 城으로 약간의 흔적만 있다.

土城둘레 280間

(5) 城址

玉果面 合江里에 城一안(골)에 옛성이 있었음.

(6) 雪山古城址

玉果面 雪山 天然岩壁을 利用했고 대부분 崩壞되었다.

壬辰倭亂때 柳彭老 將軍이 여러 지역에서 義兵을 모아서 훈련 시킬때 쌓은 것으로 추측된다.

(7) 無名城址

石谷面 德興리에 있는 土城으로 둘레 350間

(8) 無名城址

谷谷面 梧枝리에 있는 土城으로 둘레 200間 高2尺

(9) 古城

谷城邑 長善里에서 東으로 5리에 있다는 大東地志勝覽에 있다.

(10) 堂山壘

谷城邑에 선조30년에 쌓았으며 天將留鎮處에는 우보루가 있다. 大東地志勝覽에 있다.

梧竹鳳

옛날 谷城縣廳이 있었던 竹谷面에서 가장 높은 山은 桐裏山이라 불렀던 鳳頭山인바 이곳 地勢를 鳳凰形國이라 하고 現谷城邑이 道誌記에 依하면 動樂山이 진동하고 鳳凰이 날아가는 地形이라 하였다.

鳳은 梧桐이 아니면 살지 아니한故로 梧枝里란 마을이 있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않는고로 竹谷, 下竹, 竹山등 마을이름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梧山面, 竹谷面, 梧谷面 등에 鳳이 머문다고 하여 鳳停里 대밭에 내려 앉는다고 下竹里, 竹山里 또한 飛鳳, 留鳳, 棲鳳, 鳳田, 鳳頭山, 鳳頭里, 鳳棲洞등 梧, 竹, 鳳字로 關聯시켜 지은 里名이 많다. 그리고 곡성읍 檀君殿이 있는 자리를 鳳凰臺라 부르고 있다.

穀城館

谷城은 百濟 文周王때 郡名을 欲乃라 했고 浴川이라고도 했는데 이때의 縣廳은 죽곡면 당동리에 있었다. 百濟때 고을이름이 谷城으로 變한 것은 新羅統一以後인 景德王16年(757)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浴川이 谷城으로 바뀐것은 어느 郡보다 골짜기가 많기 때문이었다고 하며 谷城郡 面積의 75%가 林野고 큰 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발 600~700m 山이 많아 溪谷이 自然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틀림없겠다.

그러나 一部 住民間에는 現郡廳舍 뒤에 있었던 옛 客舍현관이 穀城館이라 쓰여있는 것과 關聯시켜 谷城 옛 이름은 穀城이었는데 朝廷에서 그 고을의 글자이름만 보고 稅金을 많이 내라고 해서 고을백성들의 부담이 많아 고을이름을 「穀」字와 음이 같은 “谷”字를 써서 세금부담을 줄였다는 說도 있다. 이 穀城館은 日政때 만든 邑誌에는 1603年인 宣祖30年에 縣監 權勳(권예)가 重建하고 李箕徵이 썼다고 되어 있으나 그 현관이 穀城館으로 바뀐것은 정확히 알수 없다.

“옛” 곡성군민의 노래

바위로 집을 짓고
瀑布水로 술을 비어
松風은 거문고요
鳥聲은 노래로다
아희야 술을 부어라
與山同醉하리라
※지은사람 不名

谷城郡 八景

動樂朝日
雪山落照
鴨綠歸帆
通明宿雨
鶉江清風
道林曉鐘
大荒漁火

谷城의 民俗놀이

● 옷놀이

가을 일이 끝나고 동짓달로 접어들면서 설을 전후로 농촌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여 옷놀이를 한다. 옷은 감나무나, 박달나무로 만든다. 손에 잡기에 알맞는 나무를 길이 15cm쯤 되게 두 토막으로 자른다음 그 가운데를 두쪽으로 쪼개 네쪽으로 만든다. 옷판말은 두꺼운 종이나 나무판자에 그리는데 도, 개, 걸, 옷, 모의 5수를 4번해서 4각형을 이루고 중앙은 방이라 해서 말들이 교차할 수 있게 하고 출발점을 달는곳 출구를 나가는 곳이라 하여 말하나가 나는 것을 한동, 4동이 먼저 다 나는 편이 이긴다.

● 널뛰기

정초에 부녀자들이 즐기는 고유한 민속놀이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전설에 의하면 높은 담장 저편에 갇힌 옥중의 남편을 보려는 그 아내가 다른 죄인의 아내를 피어 돌이 이 널뛰기를 하면서 그리운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설과 그 시대의 여인들은 항상 집안에 갇힌 몸이었으므로 이 놀이를 창안하여 높이 올라갔을때 담장밖의 세상을 살펴 피고 외간남자의 모습을 엿보기도 하였다는 설도 있다.

● 그네뛰기

5월 단오날을 전후해서 여자들이 그네를 뛴다. 그네가 높이 솟는것을 잘 뛰는 것으로 치는데 치마자락과 저고리 옷고름을 바람에 나부끼며 반선희(半仙戲) 또는 비선희라 일컬음. 그네를 메는 것은 대개 4月初파일 무렵이다. 그네를 옛 문헌에서 추천(鞦韆)이라 기록하고 있다.

● 씨름

남성들이 힘과 슬기를 겨루는 경기의 일종인데 정월보름날, 5월 단오날, 7월 백중날, 8월 추석이 되면 장정들이 모여 씨름을 했다. 두사람이 살바를 허리와 다리를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며 손과 발로 쓰러뜨리면 이긴 것이다. 장소는 강변의 모래밭이나 잔디밭 같은곳을 택함. 우수한 사람을 장사라 일컬음.

● 차전

동체싸움이라고도 부른다. 차전놀이는 음력 정월 14일, 15일에 거행된다. 경상북도 안동좌방에서 행함. 동체가 필요한 재목 선정에서부터(30~40척의 길고 튼튼한 참나무) 경기가 시작되는 날까지는 오랜기간 갖게 하기 위하여 농악을 치고 술을 마신다.

● 지신밟기

지신밟기란 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신을 위안하는 행사로 주로 집안에 자리잡고 있는 여러 신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복하고 1년동안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

가 태평하려면 재화를 내쫓고 복을 불러 들이는 초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초에 지신을 위안 함으로써 태평을 누리고 1년동안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지신밟기를 함.

● 답교놀이

음력 정월 15일 즉 대보름 밤이 되면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다리를 건너 갔다 왔다하는 풍속이 전해지고 있어 이것을 답교놀이라고 한다. 답교는 자기의 나이대로 다리를 밟으면 좋다고 해서 다리가 없는 마을에서는 다리가 있는 이웃마을까지 찾아가서 자기 나이대로 다리를 밟는 일이 있다.

● 관등놀이

초파일 저녁을 등석(燈夕)이라 부르며 저녁이 되면 절은 물론 여염집과 가게 관청에 이르기까지 모두 등을 달고 불을 밝게 한다. 초파일을 며칠 앞두고 각 가정에서는 장대(長竿)를 세우고 장대 끝에다 꿩의 꼬리를 묶어 달아 놓은다음 비단으로 줄을 매어서 등을 달 준비를 한다. 장대를 세우지 못한 집에서는 추녀밑이나 나무가지에 줄을 매고 등을 달기도 하였다.

● 탐돌이

사찰에서 재가 있을때나 4월 초파일에 스님이나 신도들은 불탐을 돌면서 염주를 세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였으니 이것이 탐돌이다. 신도들은 탐을 돌면서 위로는 국태민안을 빌었고 아래로는 저마다의 소원을 빌면서 일신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문헌에 의하면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처음으로 불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지금으로부터 1천6백년전의 일이다.

●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굵은 동아줄을 가운데 두고 많은 사람들이 두편으로 나누어 標識木을 꼽든지 또는 땅에 선을 긋고 中心點, 左右 두패로 갈라 줄에 엉겨붙어 힘을 겨루는 놀이이다. 應援聲속에 어느 쪽이고 지쳐서 잡아 당기는 쪽에 쏠려나가면 勝負는 결정난다. 줄다리기는 정초에서 정월 보름날 사이에 거행되며 1년동안의 태평을 빌고 농사의 풍흉을 미리 점치는 방법이기도 한다.

● 강강술래

강강술래 놀이는 여성들만의 놀이로써 서로 손과 손을 잡고 둥글게 늘어서서 원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놀이인데 추석 달밝은 밤에 행하여 진다. 강강술래의 유래는 이순신 장군의 의병술이 성공하여 왜병을 후퇴시킨뒤 이순신 장군의 의병술을 흉내내어 손을 잡고 빙빙 도는 놀이를 하게 되었다 하나 그 이전에 원시민족들이 밝은달이 세상을 비취 줄때에 어둠의 공포속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고 또 적의 모습과 맹수의 접근도 식별할 수가 있어서 밝은 달밤에 온 부족들이 모여 대회를 열고 놀이를 즐겼다고도 한다. 원래는 원시사회에서 즐긴놀이의 일종이었던 것을 이순신장군이 의병술로 응용했던 것이다.

● 하드레 공북기

정월이 저물고 2月 초하루가 되면 이날을 “하드레”라 하여 부녀자들은 집안마당(뜰)가에나 隣接한 밭가운데다 남비를 걸고 마른 피마자대로 콩을 볶는다. 검정콩을 쓰는 것이다. 콩을 볶으면서 “굼벥이 볶으자 달팽이 볶으자” 하고 남비위의 콩을 휘젓는 것이다.

● 복조리

선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복조리 사시요” 라고 골목을 다니면서 조리를 팔러 다닌다. 조리를 선달이나 정월에 사두면 1년동안 복을 많이 받는다는데서 복조리라 부르며 정월달에 5일시장에 나가 1년동안 소요되는 량을 사다 방구석이나, 부엌에 매달아 두고 사용하여 오고 있다.

●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속담에 고려시대의 최영장군이 탐라를 칠적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음력 겨울달이면 아이들이 연을 띄운다. 이때 연은 窓戶紙나 大好紙 또는 비료포장지로 만든다. 대보름이 되면 연에다 붓글씨로 집안식구의 생년월일이나 「途厄」 또는 「送厄迎福」이라 글을 써서 높이 올린 다음에 연줄을 끊어 꼬리를 달아 불을 부쳐 날려 보내기도 하였다.

● 돈치기

정초에 청소년들이 한다. 마당같이 편편한 곳에서 5m쯤 되는 거리에 선을 긋고 동전하나 들어 갈만한 구멍을 뚫고 두사람 이상 몇이든 할 수 있는 놀이다. 또 지금은 벽에 부딪쳐서 하는 것과 두 손안에 쥐고 흔들어서 알아 맞추기 등으로 하고 있다.

● 더위팔기

보름날 아침 밥을 얻으러 다니면서 친구들의 이름을 부른다. 이때 대답하면 “내더우내더우”(내 더위우 사가거라) 이라고 흥겹게 소리친다. 이 더위팔기는 세번이상 팔아야 좋다고 한다.

● 버들피리(회뚜기피리)

하천가 물오른 물버들, 실버들을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분다.(3, 4月경)

● 숨바꼭질

골목 동구나마 벼짚단가리 헛청과 돌담등을 끼고 여럿은 숨고 한 사람은 술래가 되어 찾아 다니는 놀이다. 이때 먼저 잡힌 사람이 숨어 있는 사람을 술래가 찾으려하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한다.(봄, 가을)

● 擊毬

동지 선달 정 이삼월까지 놀았다. 네명이 놀때는 四方毬 두명이 놀때는 雙峰毬라 불렀다. 이 놀이는 계속 많이 받아찬 사람을 승자로 꼽는다.(靑少年 正 2, 3月 冬至 선달)

● 장기(將棋)

32個 木片刻, 青, 紅色 陰刻, 楚, 漢, 兩陣戲

※ 種別—士, 卒(兵), 車, 包, 馬, 象 등 文字刻

● 비둑

縱, 橫 361線의 劃版上 黑, 白, 小石을 가지고 勝負戲

● 눈겨름

서로 마주 앉아서 눈을 크게 뜨고 깜짝이지 않고 바라보기를 하는 겨름.

● 비석치기

머리위, 어깨, 턱밑, 허벅지, 오금, 무릎사이, 발등에 돌을 끼고 엎어 일정한 거리까지 가서 세워진 돌을 쳐서 눕히는 놀이다.

● 가마타기

두 사람은 서로 손목을 엇갈아 잡고 한사람은 그 위에 타는 원님승마놀이이다.

● 밀창치기

땅바닥에 區劃線을 縱橫으로 그어놓고 한칸씩 기와쪽 또는 平石을 발로 차나가며 노는 놀이다.

● 실꾸리감기

어깨동무 팔끼고 팔굽밑을 돌며 「실꾸리 감자 무명꾸리 감자」 하고 뱅뱅이 돌며 노는 놀이다.

● 쥐불놀이

정월보름에 少年들이 솔가지 장작등을 「井」 形으로 쌓고 그 위에 청솔가지를 첩첩 쌓아 올려 불을 놓아가는 횃불놀이이다.

● 도롱태굴리기

솔뿌리, 청대, 싸릿대, 나무가지 등으로 나무수레 테를 만든다. 또는 소매장군 부서진 테등으로도 만든다.

● 巡邏軍戲

앞장선 아이등에 등대고 줄을 지어 붙어 늘어서서 맨끝 풍무니 아이부터 차근 차근 잡아 낚는 술래잡기(호리개 잡기) 놀이다.

● 판수놀이

장님놀이이다. 한 사람을 머리통과 눈까지 가리우고 여럿이 놀려대면 그 소리를 밟아 찾아 뛰어

잡는 까막잡기 놀이로도 불린다.

● **피금발치기**

한쪽 다리를 꼬아 무릎꿇고 한쪽 다리로 토끼뿔처럼 橢圓形, 圓形線 밖으로 밀쳐내는 놀이로 때로는 돌지치기 놀이로도 變格化해서 즐긴다.

● **줄넘기**

질경이줄, 삼줄, 오락지줄, 새끼줄, 칩줄 등으로 두사람은 兩端에 서서 拋物線을 그리며 돌린다. 모든 아이들은 차례차례 中心點을 타고 넘는 놀이다.

● **풀치기**

솔뿌리, 칩줄기, 풀넝쿨, 고동 솟아난 빼뿌쟁이 줄기 등을 끊어서 서로 엮어 부벼대어 끊는 놀이다.

● **소꿉놀이**

百片土器破片, 粘土, 草, 花, 木, 實 등을 주어 飲食床 차리기 놀이다.

● **고춧대지게**

V字型 上端雙갈래 下端 외갈래 달린 한 묶음의 고춧대를 잘라 지게 모양을 꾸며 雙갈래 空間에 雜同散異들을 집지워 들고 노는 놀이다.

● **엿치기**

가래엿, 호두엿 등을 엿도가 거리의 엿판에서 골라 끊어 두동강내어 구멍수 셈으로 勝負를 判定하는 놀이다. 구멍수가 많은 쪽이 이기고 구멍수대로 엿을 따먹는 놀이다.

● **땅뺏기**

땅에 橢圓形, 四角形, 圓形 등을 그려 놓고 두세명씩 편을 나누어 목에 얹어 가위, 바위, 보등 勝者 셈順으로 손뼉 채는 이른바 領地擴張놀이다. 일정한 돌조각, 葉錢, 새금 파리쪽 등을 툇기며 논다.

● **봉숭아 물드리기**

잎과 꽃을 따서 白礬을 살짝 섞어 깨끗한 돌바다에 고루 찼어서 아주까리 잎에 쌓아 두었다가 밤저녁 손뼉머리에 붙여 싸매고 잔 후 아침에 풀어보면 곱게 물이든다.

● **팽이치기**

어름판 굵은 땅에서 팽이 돌리기를 즐겼다.

팽이종류: 소뿔, 박달나무, 참나무, 귀목나무, 감나무, 솔나무 등 다양하다.

팽이채: 가죽채, 질갱이채, 칩줄채, 형겍채, 삼줄채, 노끈채, 솔뿌리채등

● 팽돌이

뾰뾰한 色紙를 손工役들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접고 오려서 팽돌이를 만들어 동산 언덕등의 바람에 마주대고 놀때 부서진 지우산대, 싸릿대, 곱대, 심대등에 끼어 놓았고 바람통 추녀에 꽂아 놓고 즐긴다. 또는 입에 물고 달리기도 하며 즐긴다.

● 關錢놀이

그림으로 끝수를 표한 노름

● 花關놀이

48장으로 된 노름

● 팔씨름

壯元者 뽑기로 팔힘 겨루기다 두 사람씩 어울린다.

● 乞粒놀이

乞粒牌風物놀이이다. 高柱大門長者 집을 골라 庶厄긋치고 肇歲賀禮, 德談 쏘아 大運맞이 厚人心 積善을 촉구 義損받은 物資로 우물치기, 橋梁補修, 亭子修築, 茅亭改造, 길담기등 扶助로 두루 쓰인다.

● 골패놀이

검은 나무 바탕에 흰 뼈를 부쳐 여러가지 數交의 구멍을 판 노름

● 허방다리짚기

심술꾼 개구장이 들의 놀이다. 陷奔을 파놓고 그 위에 저립대를 깔고 아주까리잎, 호박잎, 오동 잎등을 썬고 흙을 깔아 감쪽같이 감추어 평지길로 꾸민다. 日沒후 골목에 숨어서 넌즈시 망을 보다 醉客들이 行步中 헛딛고 넘어지는 모습을 苦笑하는 짓곳은 장난놀이이다.

● 개똥불놀이

호박꽃 소지종이 葛布網등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반딧불을 그 속에 잡아 넣어 노는 반딧불 호롱놀이이다.

● 돛놀이

歲寒 진눈깨비라고 휘뿌리는날 장독대머리, 앵두나무 그늘밑 샷갓, 쌀체, 옹동이, 재삼태기등 작대기를 바친 그 위에 멧돌 한쪽으로 눌러 썬고 새끼끈 질갱이끈 등을 작대기에 비틀어 메어놓고 줄 한 끝을 방속에 끌어들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때마침 참새떼들이 날아와 뿌려놓은 쌀, 조, 보리등을 주어 먹다 돛메에 걸리면 잡는 놀이다.

● 발목치기

새끼줄, 질갱이줄, 삼줄등 고리 「돛틀」로 꾸며 흙으로 살짝 덮여워 감추어 놓고 으쓱한 담모퉁이에 숨을 죽여 망을 본다. 때마침 미운놈이 지나갈때 잽싸게 나꿔채면 영낙없이 발목이 걸려 넘어지기 마련이다.

● 실뜨기

길이 1m 程度 실토막 양단을 묶어 輪줄꾸며 두 손목에 끼고 여러 모양의 形態로 바뀌가면서 노는 놀이다.

● 두꺼비집짓기

흙속에 왼손을 묻고 呪文을 몇차례 暗誦하며 바른손으로 흙을 다독거린 다음 왼손을 조심조심 빼낸다. 그때 洞窟이 完全하면 이기고 무너지면 敗하는 가마짓기 놀이다.

● 男寺黨줄타기

한손에 줄부채, 무명배, 지우산, 샷갓등을 들고 十餘尺 높이 팽팡이 메놓은 줄위에서 風樂따라 추는 曲藝놀이다.

● 巫堂놀이

금줄치고 돛자리위에 白紙깔고 香피워 촛대를 밝히고 북, 징, 搖鈴 울려 춤추며 海上안녕 聚落 安寧등 신의 뜻을 받아 불안한 심령을 달래주고 잡귀를 쫓아 준다는 무당놀이(3, 4月, 정월보름)

● 讀經

그해 無事太平祝願(정월보름, 정월중)

● 못치기

粘土, 沙土, 濕地, 秋收 끝난 田畝등 空閑地를 골라 못치기 놀이를 즐겼다.

● 각시풀놀이

논 밭두렁, 방죽도랑, 河川邊등 비교적 濕地에 돌아난 각시풀을 소금에 살짝 짚어서 삼단같은 머릿채로 곱게 따 느릴때 귀엣머리를 부쳐 만들었다.

道林寺 가는길



鄭 捷 澈
(谷城高等學校長)

谷城 地域은 소백 山脈의 힘찬 줄기가 智異山 반야봉을 향해 줄기차게 뻗어나간 분기점 南西 쪽으로 고른 山勢와 기름진 들녘에 섬진강 물줄기까지 안고 있어 예로부터 풍요로운 땅으로 正評이 났다. 이런 地勢를 背景으로 湖南地域의 4大 明堂터라고 하는 南仙女座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道林의 효종 소리와 함께 동악산에 아침 해가 비치면 여기 저기 삶의 現場에서 순박한 우리 고장의 住民들은 無限 競爭 時代인 世界化를 向해서 꿈틀거리기 始作한다. '94년 10월 중순 김길영 谷城 文化院長님으로부터 鄉土紙 發刊 原稿 請託도 있고 내 祖上이 여기에 자리하였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 자랐으며 또 내 後孫의 터전이 될 谷城을 사랑하고 아끼기에 아침과 함께 谷城의 門을 열고자 옛 선인들의 修養의 道場인 道林寺를 찾아 보기로 했다. 마이카 時代에 내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좋지만 谷城 郡內 버스를 탔다. 鄉土色이 짙은 典型的인 시골 버스 技士의 구수한 이야기 소리를 들으며 道林寺 入口에서 내렸다. 入口의 오른쪽엔 옛날의 酒幕집이 그대로 있다. 꼬불꼬불했던 오솔길은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었으나 웬지 허전하다. 道路의 양쪽엔 郡 當局에서 모과나무, 벚나무 등 그런 대로 모양새 있게 造景을 해 놓았다. 光州를 오가며 지날 때 항상 그리움과 애뜻한 情에 눈시울 적시던 보고 또 보고 싶은 둘째 누님의 무덤이 보이는 월봉리 뒷쪽 마을에서 흐르는 계곡엔 갈대만 무성하고 건너쪽 도상 國民學校는 離農 現象으로 學生數가 줄어 閉校가 된 채 放置되어 새로운 主人을 기다리고 있다.

溪谷을 끼고 올라가면 널따란 空間에 깨끗한 솔밭은 봄, 가을 各種 親睦 團體의 놀이와 學生들



의 造風 場所로 愛用되지만 쓰레기 하나 찾아 볼 수 없이 깨끗하다. 바로옆엔 日帝時代 義兵의 先鋒長으로 活躍했던 愛國志士 윤정구 墓所가 자리잡고 그 위엔 道林寺 國民 觀光地 造成工事が 한참 進行 중인데 造成 面積 73,380坪餘 規模에 總 事業費 53億원을 投入하여 '98년에 完工을 目標로 37%의 工程을 보이고 있다. 훗날을 위해 이곳의 景觀을 카메라 필름에 담아 보았다.

주변의 秀麗한 景觀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觀光名所가 決定되는데 우리는 印度의 갠디스江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俗世의 煩惱를 씻기 위해 洗手하는 場面들을 TV畫面을 통해서 더러 보았다. 道林 溪谷의 맑은 물을 潭水하여 새로 新設되고 있는 위락 施設 用水와 흐르는 溪谷을 스탠드 식으로 構想한다면 전국 市郡에서도 由來를 찾아 볼 수 없는 道林 煩惱 洗滌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도 해 보면서 사하촌 월봉 마을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봄철엔 壽齡을 알 수 없는 아름드리 빛나무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오고 가는 길손을 즐겁게 하더니 가을이 되니 마당 가운데 빨간 고추가 즐비하게 널려있고 별장계 물든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 밑 언덕배기에 한가히 풀을 뜯고 있는 염소가 豐饒로운 人心을 맛보게 한다.

조금 올라가면 왼쪽 숲속으로 道林 國際 觀光호텔이 보인다. 地下 500m에서 끌어올린 神祕의 백반 石水를 사용한 漢方 竹鹽 사우나가 年中 無休로 營業中이라고 誘惑한다. 登山후 한번쯤 가볼 만한 곳이다. 入口에서 2Km 境內로 들어가는 周邊엔 雜多한 商店들이 아직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군데 군데 보인다. 整備의 必要性을 느끼면서 절 쪽을 向해 가면 道林의 眞面目을 볼 수 있다. 道路邊 한그루의 千年 老松은 맑은 溪谷의 盤石을 빗삼아 늘푸른 그늘을 자랑하고 있어 술한 人間들의 멋진 背景이 되어 주었는데 요즘 보니 누가 볼품 사납게 가지를 전정해 버려 쓸쓸한 맛이 있다. 盤石 위엔 해서체로 “淸流水岩 動樂風泉”이라 써놓고 놀다간 선인들의 자취가 역력히 보인다. 물 굽이쳐 내리는 盤石 위에 絶句나 律詩를 새기며 風流를 즐겼던 선비들이 부럽다. 굽이 굽이 흘러가는 溪谷의 岩壁에 몇 曲이나 된지 仔細하게 살펴보는 않았으나 五曲 樂樂臺를 비롯한 때 묻지 않은 自然 그대로의 瀑布를 볼 수 있어 좋다.

道林寺는 A.D 660年 元曉大師가 創建했다고 전하는데 道人이 숲같이 모여 道林寺라 했다는 것이다. 李朝 순조때 李書九의 歌辭중 湖南歌 구절 속에 ‘谷城의 숨은 선비 求禮도 하려니와’ 라는 말이 우연이 아니다. 道德性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時代의 젊은이들을 위해 구름같이 모여든 옛 道士들처럼 道林寺 入口 閉校가 된 도상 國民學校를 精神 文化院으로 改造해서 道德性 回復 修鍊場을 만들면 어떨까? 조롱박으로 석간수를 시원스럽게 한 종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몇 개 안되는 부도에서 한 世代를 高貴하게 살다간 선사들의 발자취를 보고 싶었으나 부도는 있되 碑石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境內로 들어가 보니 낡아 헐어진 승방을 짓기 위해 덤프 트럭이 분주히 오고 가고 기와장 하나씩에 시주자의 이름이 페인트로 새겨져 있어 집을 짓게 되면 그런대로 멋이 있을 것 같다. 누가 시주를 듬뿍 해 주었으면 세월이 흐르드래도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餘韻을 둔 채로… 사람은 땅을 밟고 地熱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아스팔트와 시멘트 위에서 生活한다. 신발에 흙을 밟기란 흔치 않다. 學校 運動場이나 登山할 때뿐이다. 절을 찾고 山行을 하는 사람들에게겐 포장된 길이 필요 없다. 自然에서 위로를 받고 피로를 풀고 싶어한다. 따라서 道林寺의 중창도 시멘트, 아스팔트, 덤프트럭으로 문질러 버리지 말고 時間이 걸리더라도 古風스런 옛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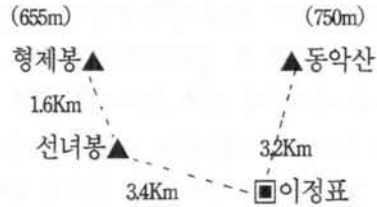
골짜기를 타고 八曲 모퉁이를 도니 岩壁에 元曉祖師, 義湘大師, 居士, 國師, 禪師, 處士 등 13名의 芳名錄 같은 이름들이 陽刻되어 道林의 境地를 더욱 실감케 해준다.

이곳에서부터는 사람들이 그리 다니지 않다보니 산길은 雜木으로 뒤덮여 있다. 한참 올라 가면 동악산과 兄弟峰 溪谷에서 흐르는 물이 合水된 곳에 맑은 못이 보인다. 여기서 世谷의 때 문은 虛慾을 씻고 단풍이 붉게 물든 숲 속으로 가면 谷城郡 山岳會에서 세워둔 里程標가 보인다. 왼쪽 길을 선택하여 兄弟峰으로 발길을 옮겼다. 길은 가파르지도 않고 완만한 傾斜를 이루어 쉬엄 쉬엄 가드래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 各樣 各色으로 단풍진 숲은 奧妙한 調和를 이루고 8부 稜線쪽에 약수터가 있어 시원스럽게 갈증을 풀고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러나 눈길을 돌리면 역사의 興亡盛衰를 맞본 기분 (655m) 이어서 몹시도 애처로운 感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부 형제봉 ▲ 동악산 (750m) 근에 길상암이라는 庵子가 있었는데 불과 몇십년 만에 선녀봉 ▲ 1.6Km 3.2Km 폐허가 되어 버리고 지금은 가시덤불과 쭉대만 우거져 그 시절 參禪했던 스님들은 간곳이 없다. 아마도 民衆 속으로 파고 들어가 大衆을 제도하기 위해 都心속의 아파트나 圖書館으로 갔을까 아무튼 옛모습을 찾아 볼 수 없고 稜線쪽에 어떤 처사인지 거사인인지 修道하는 움막집이 초라하게 보일뿐이다.

계행무상의 허전함을 虛空에 띄워 버리고 발길을 돌리면 얼마 가지 않아 仙女峰에 다다른다. 깎아 지를 듯한 絶壁이 一品이다. 고달면에 사는 陳선생의 말에 의하면 고달에서는 이 바위가 平常時에는 보이지 않으나 비가 올려면 바위가 女子의 乳頭처럼 보인다고 한다. 神仙들이 바둑을 두며 놀았다고 神仙峰이라고도 한다 하니 아무튼 神奇한 바위이면서도 매우 危險한 곳이기도 하다. 仙女峰을 지나 진달래 나무가 칙칙하게 엉켜있는 가파른 곳에 兄弟峰 頂上이 있다. 비록 海拔 655m 밖에 안되지만 奇岩 怪石과 박달나무, 후박나무, 진달래 등 누구 하나 보아주지도 않은 단풍이 계곡마다 짙게 물들어 山 全體가 수놓은 비단같다. 頂上에 서면 四方 八方이 한눈에 들어온다. 동쪽으로 智異山 반야봉과 천마산이 서쪽으로 無等山과 설산이 指呼之間에 있어 손에 잡힐듯 정겹게 펼쳐져 있다. 벼 익은 노란들판엔 언제부터인가 비닐 하우스가 펼쳐져 하얀 겨울 바다를 聯想케 한다. 頂上의 周邊은 아직은 때문지 않은 곳이라 신선감을 만끽할 수 있고 무척 깨끗한 기분이 든다. 가슴이 확 트인다.

頂上을 오르는 동안 나는 谷城 高等學校 校長으로서 後學 育成的의 길을 세 가지로 整理해 보았다. 먼저 우리 고장의 人物을 찾아 그분들의 業績과 精神을 龜鑑으로 삼자, 다음에 世界化로 가는 時點에 폭 넓은 지식을 습득케하여 尖端 文明과 情報化 時代에 對應할 수 있는 인재를 부단히 育成하자 마지막으로 地方化 時代가 되면 앞으로 내 弟子들 중에 地域의 中樞의 役割을 擔當할 사람이 꼭 나올 것으로 보고 指導者로서의 能力과 人品, 社會에 報答할 줄 아는 젊은이로 훌륭히 기르고 싶다. 道林寺 가는 길 그것은 世界의 門을 여는 길이 될 것이다. 谷城 高等學校 學力 提高의 產室인 寄宿舍의 名稱을 道林學塾이라 한 것도 이런 脈絡에서였다. 頂上에 우뚝 서서 외쳐 본다. 야~ 내 音聲 메아리 치는 곳마다 좋은 佳緣 있기를...



대양주



이수열

(곡성 죽곡중학교 교장)

〈기간: 1995년 1월 11일~1월 22일〉

■ 차례 ■

- 호 주 편: ① 브리스베인
- 뉴질랜드편: ① 오클랜드
② 로투루아
- 호 주 편: ① 시드니

● 브리스베인

1995년 1월 11일.

거대한 항공기의 소음과 함께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 왔다. 밤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 어둠 속에 묻혀 버린 육지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철축 속에 잠기고 어느새 탑승객들은 잠을 청하고 있다. 나도 그들과 같은 잠에 젖어 보지만 요란한 기체의 소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뒤척이다 눈을 떠보니 동이 트고 있고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는데 산 위에서 골안개만 보았던 나로서는 장관이 아닐 수 없다. 거대한 雲海 위에서 한 번 뛰어내려 보고 싶은 충동마저 느끼게 한다. 광대한 지구에 바늘구멍만한 내 생활의 터전을 비웃듯 시야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와 해안이 전개되고 있다. 그것이 호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 브리스베인 공항에는 파릇한 잔디와 함께 신록이 우거진 여름의 경치가 후덥지근한 열기 속에 서려 있다. 1776년 영국의 제임스 쿡이 호주를 발견한 이래, 수도 켄버라를 비롯하여 넓고 광활한 지역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의 개발로 오늘날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시킨 곳이 Australia이다.

첫날 도착한 이 곳 브리스베인은 한국의 젓줄이 한강이듯 브리스베인 강을 중심으로 235만의 인구가 있고 낭만이 있는 가운데 세계 3대 휴양지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었다. 한강은 오염된 가운데 병들어 가고 있지만 브리스베인 강은 살아 숨쉬며 세계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역이 넓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은 여유있고 질서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곳은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질

서를 유지하며 한적한 도심을 유유히 달리고 있다.

서울랜드, 어린이 대공원 등 한국의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하루 쓰레기양은 얼마며 파괴되고 오염되는 환경은 익히 열거하지 않아도 한국인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국의 유원지와 같은 이 곳 브리스베인의 Sea World이며 Surfers Paradis며 Mt Coottha, Botanic Gardens에서는 각종의 인종이 물려들고 있지만 오물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미아가 발생하지 않으며 파괴되는 시설물이 없다. 한국의 유원지는 가는 곳 마다 입장료가 있지만 브리스베인은 거의 무료다. 시가 시민을 위해 사회복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민들의 질서의식 또한 우월하다. 교사가 교단에서 학문상의 이치를 전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자율성은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다. 깨끗한 브리스베인 강변의 호텔 방에서 밤은 깊어 어둠 속에 질어가는 착잡한 가운데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새로운 교장이 되어 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해본다.

브리스베인의 2일 쯤 10:00에 Open하는 Art Galley 미술관을 관람했다. 한국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은 없지만 英연방의 영향 탓인지 영국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았다. 관람객의 관람태도가 진지했으며 작품의 보존 상태에 유난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관람 후 곧 바로 Avogado 농장을 견학했다. 650만ha의 방대한 면적에서 수많은 과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어 재배되고 있었으며 사탕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진 이 농장을 일일이 살펴보는 데만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땠는지? UR에 대비한 한국의 농촌이 본받아 개선하여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더욱이 세계 각국의 과일들을 접목하여 새로운 맛을 내는 과일을 생산해 내는 그들의 진지한 농작법에 찬사를 보낸다. 천혜의 기후 조건이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도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브리스베인의 한국 유학생과 교포 자녀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호주인들에게 똑똑한 민족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못내 아쉬운 것은 이 곳은 지금 여름방학이라 수업 장면으로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2일 쯤 마지막 코스인 Sanctary Cove에 들렀다. 일본인들이 구입하여 만들어 놓은 위락 시설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부터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경제력이 풍부한 나라가 그 힘으로 호주의 Gold Coast며 Sanctay Cove 등의 시설로 브리스베인의 경제력을 뒤 흔들고 있다. 우리의 국력도 착실한 성장 속에 日人보다 앞서는 계획과 실천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해 본다.

브리스베인의 야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도시계획이 아주 영구적이며 브리스베인강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건축미와 견고함이 청결 속에 질서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층계마다 전등불을 넣어서 층계가 잘 보임과 동시에 강물에 반사되는 불빛이 너무도 아름다우며 도로의 설계가 양편으로 건설되었는데 중앙은 우리나라 중앙 분리대식으로 3~4차선의 넓이로 잔디가 깔려 있다. 즉 후일 교통이 더 복잡해 지면 그 곳을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라 한다. 미래를 예견하는 그들은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해 본다.

● 오클랜드

1995년 1월 14일.

비행기 사정으로 여행일정이 바뀌어 원래 목적지인 시드니를 다음 코스로 돌리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공항에 12:30분에 도착하여 에덴 동산 알버트 공원등을 둘러 보면서 공원의 중요성을 알았다. 한국에서야 노인들이나 앉아 있을 뿐인 공원이 뉴질랜드인에게는 생활의 한 공간이었다.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하며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여유있는 삶을 보게 된다.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를 가르켜 세계3대 사회보장 국가라 한다. 이 곳 뉴질랜드는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정부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이 지급되며 각종 의료 혜택도 받게 된다. 한국도 경제력이 튼튼한 나라로 성장하여 이러한 사회 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반면에 뉴질랜드인은 한국인처럼 근면하지 못하다.

정부에서 각종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열심이 일하려 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풍요로이 즐기지만 할 뿐 한국처럼 큰 부자가 많지 않다. 1840년경 세계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뉴질랜드는 한국의 3배 정도 되는 땅에서 풍요와 낭만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 곳 오클랜드는 항구 도시로서 약 1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는 노동자가 2~3배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그 이유는 국민의 대부분이 1차 산업(임업,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대학 진학자가 많지 않고 학교 교육도 우리나라 처럼 학원을 비롯한 각종 개인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체크하여 공부하고 있을 뿐이다. 시험도 1년에 2번만 치르고 있으며 중학교 부터는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과 비슷하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어쩌면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이 나라도 언제까지나 그 풍요로움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서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현재 국민 소득 22,000 \$의 나라도 풍요로움은 있으나 그것이 모두 임업, 농업, 축산업에서 나오는 소득원으로서 언제까지나 천혜의 자연 자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3차산업의 발달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민의 교육수준과 첨단 과학의 소지자가 많지 않은 점이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대, 삼성, 금성 등의 기업이 이 곳에 진출하면서 일본인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 곳 경제에도 상당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역시 국력이란 자연의 힘 역사의 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이리라. 천혜의 자연 자원으로 낙원을 누리고 살고 있는 이들도 인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에게도 그 댓가로 얻어지는 향기로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나친 자율은 방종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이 곳 뉴질랜드는 18세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 독립을 하여 결혼 후에도 부모를 잘 찾아가지도 않고 부모를 모시지도 않는다. 여기에 비하면 한국의 효 사상 이야말로 세계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만이 갖는 훌륭한 점이다.

오클랜드 방문 2일째 Mt Roskill Primary School과 Mt Roskill Grammar Schcoll을 방문하였으나 이 곳도 호주처럼 별로 덤지도 않게 느껴지는데 3개월이라는 여름 방학 중이라 학생들을 볼 수 없었다. 다만 이 곳의 학생교육이 암기식 객관식이 아니라 이해와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의 해결 능력을 위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우리 나라의 교육도 획일적인 방식에만 얽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진일보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오전 10:00 오클랜드 박물관을 관람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전시물 및 전쟁 기념관을 관람했다. 우리 나라처럼 깊은 역사가 아닌 200년의 짧은 역사인 이들에게 뿌리깊은 문화유적은 없으나 전쟁 기념관에서 6.25때 한국전쟁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이들의 명단이 새겨진 석벽 앞에서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영원한 평화의 날을 기원했다. 지금도 이곳 오클랜드 참전 용사회에서는 가평(당시 뉴질랜드 군이 주둔했던 곳) 중고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으며 해마다 한국 학생 2~3명을 초청하여 뉴질랜드를 알리고 있다.

중식 후 Metal Masters of Track와 Michael Joseph Savage 동상이 있는 공원 Memorial Garden Dove Myer Robinson Park에 우리 나라에서 신고 왔다는 돌에다 '영원히 기억하리' 라는 글귀가 실려 있는 6.25 참전용사 전사자들의 뜻을 기리며 비를 보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이국 땅 남태평양에서 가슴 깊이 느꼈다.

방문 3일째 Huntry에 있는 수력발전소의 장관과 흔들다리를 건너면서 화력 발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와이토머 동굴에 도착하여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일컫는 개동벌레의 불빛을 보았다. 석회동굴로 그 자체는 우리나라의 동굴이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개동벌레의 서식이 이 동굴을 유명한 동굴로 만들고 있었다.

오후에는 농장을 견학했다. 인구 6만5천으로 싱가폴만한 도시 인구지만 그 면적은 매우 광범위하다. 소와 양을 기르면서 아울러 관광 산업에까지도 참여하게 되는 그들의 다목적 생활방식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이 아닌가 한다.

● ROTORUA

1월 17일 Rotorua로 이동하여 그 곳 원주민 마오족의 민속촌을 방문했다. 1886년에 왕성된 이래 중도에 한 번 커다란 지진으로 인하여 75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그 옆 동네로 이동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들의 생활은 변함이 없다. 그 곳에 유황 온천이 있는데 지금도 땅에서 끓어 오르는 물줄기가 마치 분수대의 물줄기처럼 뿜어 수 십미터의 높이로 솟아오르며 진흙이 끓어 오르고 지열로 인한 수증기가 군데 군데서 피어 오르고 있다. 관광할 것은 Rotorua의 많은 지역이 이렇게 유황냄새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곳에 온천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 이 곳엔 한 곳 밖에는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을 보존하는데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안보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주변이 온통 개발되어 온천수가 모자라 질이 떨어지는 현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자원을 절약하고 보호하는 정신이 자원이 빈약한 우리보다 더 강함은 이 나라를 지구상의 유일한 자연의 낙원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Rotorua 호수 레이건 퀸 쿠르즈 선상에서 중식을 하며 광대한 호수와 풍요한 산림과 여유있는 이 나라 사람들의 친절함이 여정의 피로를 훨씬 더 가볍게 해 주는 것 같다.

● 시드니

1월 18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를 출발하여 호주 시드니에 도착했다. 200년의 역사와 142개 민족이 살고 있는 이 곳 시드니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면적에 약 360만의 인구와 2400개의 공원과 초원으로 가꾸어진 이 곳은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다. 6·25때 1개 대대를 파견하여 우리 나라를 도와주고 인류 평화를 위해 희생된 그들을 위해 마음의 기도를 드린다. 시드니의 가장 복잡한 George Street 세계에서 2번째로 긴 Harbour Bridge를 보면서 감탄했다. 1930년 우리 나라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들은 영국에서 돈을 빌려 이 다리를 착공하여 지금껏 훌륭하고 튼튼한 다리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붕괴되는 다리를 비교하여 조국의 앞날을 염려해 본다. 그러나 Harbour Bridge 밑으로 터널을 뚫었는데 그터널의 전기 공사를 맡았던 사람이 한국사람이었다는 데에 큰 위안을 가져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또한 '오페라 하우스'는 14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1973년도에 완성되었고 1년에 7~10회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나라의 가장 고전적이며 역사적인 건물들은 거의 모두 사암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이 손색이 없이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역사는 짧지만 문화유산을 소중히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점에서 높은 찬사를 보내고 싶다. 5천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의 문화 유산도 우리 국민 모두가 소중히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훌륭한 민족으로 더욱 성장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Harbour Bridge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내일의 여정을 준비해 본다.

1월 19일 Kincoppal-Rose Bay Convent of the Sacred Heart High School이라는 정통 캐톨릭 여학교를 방문하였으나 방학중이라 학생은 물론 관계자들도 볼 수 없었다. 이번 방문에서의 제일 아쉬운 점의 하나가 수업광경을 볼 수 없었던 점이었다.

이 곳 시드니는 2,000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많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으며 시드니 항구는 언제나 잔잔한 물결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시드니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 폐수는 40.25 Km의 긴 파이프를 통하여 정화 처리장으로 옮겨져 정화된 다음 남태평양으로 흘러 보낸다고 하니 이들의 자연보호 정신과 3대 미항이라 일컫는 항구가 된 이유를 알겠다. 우리 나라도 자연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시드니같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정의 마지막 날인 1월 20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Blue Mountains으로 가는 도중에 Feather Loable Wildlife Park를 들러 호주에서만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았다. 특히 캥거루와 코알라 부메랑을 눈여겨 보았으며 동물을 사랑하는 이 곳 사람들에게서 더욱 친절함을 보았다.

Blue Mountains은 1994년에 큰 화재를 만나 많은 산림이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유카리 나무들이 다시 푸르름을 되찾고 있었으며 그 정상으로까지 우리 나라 대관령의 고개처럼 구비구비 울

라가고 있었다. 美國의 그랜드캐년의 축소판으로 불리우는 Blue Mountains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할 줄 알고 더 이상 파괴하지 않으려는 이 곳 사람들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나라의 자연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 보았다.

이번 대양주 방문에서 변모해 가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과연 우리 나라의 위상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보다 깊은 비판과 생각이 자신을 일깨워 주는 생활이라면 좀 더 넓은 시야로 세계 속에 파고들어 나와 민족을 찾는 것이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한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민족마다 풍습이 다르지만 인류는 민족 나뉠대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고 현대 문명에 앞장서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우리의 학생들에게 생기있는 교육을 주기 위해 조국의 푸른 창공을 향해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 詩

車 敬 變

(詩人 · 서울중구인현동2가151-1)

오월의 등대

(외 14편)

오월은

하늘도 푸르고 높구나
날아라 날아라 마음껏 날아라
하얀 마음 파란 마음을

오월은

희망찬 새싹의 노랫소리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여
비단처럼 고운 마음이어

오월은

거울 같은 마음 푸르나니
몸 또한 씩씩하게 자라라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아

오월은

흰구름 뭉게뭉게 떠날고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메아리어
들녘도 비단되어 초원으로 곱구나

오월은

순진무구한 어린이들
나의 꿈과 마음은 장미꽃 같고

뼈국새도 기쁜 듯 축가를 불러 주는
나라의 보배란다
훗날에 기둥이 되려나.



봄 비

부슬부슬
소리없이 내리는 봄비는
정말 고마운 빗물이지요

작은 풀잎새도
촉촉하게 젖어주면
곱게 피어난 꽃 더욱 예뻐지고요

논밭 들녘엔
봄나물이 성큼성큼 자라서
가난한 입맛을 살찌우지요

새 세상에 나온
어리디 어린 초목들이
기쁜 듯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서
푸른 세상 이루고 있지요



바람

바람은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심술도 부려서
모두 모두는 이유 없이 부대끼지요

착한 나무들은
흔들어대면서
흩먼지를 훑날리면
나는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예쁜 꽃잎도
떨어뜨리고
작은 새는 겁이 나서
떨며 떨면서 숲속에 몸을 숨기지요

들녘에는
땀 흘려 가꾼 곡식들을
쓰러뜨리고 부러뜨려서
주름진 농부 마음을 슬프게 하지요

플 꽃

들길을 걸어가면
작은 풀꽃들이
모두모두 활짝 웃으면서
고운 모습을 뽐내고 있지요

꽃필 때는
너도 예쁘고 나도 예뻐서
아름다운 향기를 따라
벌과 나비는 훨훨 날아들고

키가 큰 꽃대
키가 작은 꽃대들이
어우러진 길옆에는
작은 풀벌레도 파란 옷을 입고 있지요

빨간 꽃
보라 꽃 하얀 꽃
노랑 꽃이 피어나는 들녘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지요

신 비

어린이는
길을 가면서도
머언 꿈 생각을 해 보고
해찰도 한다.

보이는 것
모두 모두가
아름다워서
꽃피우는 연습을 한다.

손에 쥐면
신비롭고
궁금한 마음은 장난감도
성하게 남는 것이 없다.

해쳐 보고
맞춰 보면서
깨우쳐 가는 마음
그렇게 꿈은 영글어 간다.



봄노래

봄 봄이 오며는
깊은 산골짜기에
두꺼운 얼음도 녹아나고
맑은 물소리만 졸졸 흐르지요

들에 들에는
움 돌는 소리 널고
상큼한 달래 냉이는
봄 내음을 풍겨 주고 있지요

메마른 나무는
봄바람이 간지러워
달래주는 아지랑이로 눈 띄우면
빨간 진달래는 아양을 떨지요

봄날은 기인 잠에서
모두가 깨어나는 소리로
자연은 아름다운 환희의 세상
작은 새도 짝과 함께
노래하고 있지요

어린이

어린이는
둥글둥글하게
어울리다가
모두모두는 친구가 된다.

내가 크나
내가 더 크지
누구나 우쭐하게
눈 높이 키재기를 하면서

즐거웁게
놀다가도
시샘하고 토라진다
그러다가 술래를 한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면서
나 보란 듯이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른다.



봄 트랙

진달래꽃 수줍은 듯
붉게 붉게 피어나고
흐드러진 개나리꽃은
예쁜 병아리 때로 피어나면

들녘에는 할미꽃이
부끄러운 듯 고개 숙여 피어나고
까아만 염소 새끼는
한가로이 재롱부리고

눈이 큰 누렁소도
봄 트랙에 벌렁 누워서
태평스럽게 풍경소리 울리며
새로운 입맛을 다시고 있지요



꿈 나무

나는 꿈나무
찬란한 푸른 초원에서
녹슬고 때묻음을 몰라
휘어지고 구름을 생각 못 한다

나는 꿈나무
언제나 씩씩하다
튼튼한 몸이 되어
푸르게 푸르게 자라만 간다

나는 꿈나무
가뭄을 모른다
항상 봄 트랙에서 가을을 몰라
오로지 싱싱한 수액을 머금고 있다

나는 꿈나무
부딪침을 모른다
다툼이 없고 쟁김이 없는
푸른 꿈만 키워 가는 꿈나무.

봄

땅에서
움 돌는 소리 새파랗게
올려 퍼지면
하늘은 깜짝 놀라서
파란 하늘은 화창하게 열고 있지요

햇빛은
나무들은 따사로운 봄별에
눈뜨는 소리 툭툭하면
새별들이 깜짝 놀라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요

개나리
진달래는 시샘을 하는지
그래도 우리가 더 예쁜 걸
하면서 감쪽스러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지요.



아가는 천사

별거숭이
아가는 천사
눈물 범벅 콧물 범벅 울다가
태평하게 누워 있는 그 모습

별거숭이
아가는 태고다
귀여운 고추를 만지면서 젓 먹는 아가
천진난만한 웃음이 감쪽도 하다

별거숭이
아가는 천진스럽게
까아만 눈망울 멀뚱멀뚱해도
머언 꿈을 그리면서
젓물고 쉬를 한다

별거숭이
아가는 울음이 무기다
순진무구한 단잠은 먼 세상 꿈을 꾸고
건강한 숨소리는 내일을 약속하고 있다.

동 심

어린이는
항상 바쁘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놀아도 놀아도 밖을 내다보고 있다

어린이는
보고 보아도 부족하고
웃어 봐도 입다물 줄 모른다
배우는 길 즐거움과 기쁘기 때문에

어린이는
자고나도 자고나도 잠이 온다
키가 크고 몸이 크면서
나는 언제나 선잠 깬듯 졸음이 온다.



봄 길

나는
기인 겨울 방학이 끝나고
이월이 오면
정든 언니들 떠나갈 때
아우된 마음으로 즐겁고 슬픈 마음에
눈물이 난다

슬픈 이월은 가고
즐거운 삼월이 되면은
나는 물려받은 언니 자리에 앉아
으쓱한 마음 뽐내면서
아우들을 사랑한다

새 학년
언니가 된 나의 반에는
선생님도 다른 분이 오시고
교실도 새로워서
마음은 즐거워도 책임은 크다

계절은 따스한 봄
기분 좋고 상쾌한 마음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고
학교 가는 길 정다울게
아우 손 마주 잡고 웃으며 봄길을 간다.

계 절

가는 봄

봄이 오면
동산마다 들녘마다
기쁜 듯이 피어난 생명은
싱그럽고 아름답다

여름 오면
푸른 마음 푸른 초록에
별광대는 한철이라고
예쁜 나비 공녀와 춤을 춘다

가을 오면
푸른 동산은 붉은 단청을 하고
나뭇잎은 바람결에 떨어지면
산새들은 집을 찾아 헤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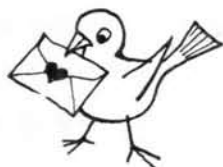
겨울이 오면
헐벗은 나무는 떨고
나는 눈사람을 만든다
푸르고 튼튼한 몸 건강을 자랑하면서.

나는 어릴 때에
고향을 생각 못 하고
훗날에 어른이 되어서
고향을 그리워한다

앞산에도
뒷동산도 푸른 빛을 생각하며
이슬이 내릴 때면
추억을 그리워한다

꽃이 피는
봄날을 고향이라 부르고
나뭇잎이 떨어질 때면
타향을 서러워한다

나와 어린이 모두는
자라면서 나이 차고
어른이 되듯이
봄이 가면 가을이 온다.



■ 詩

신 현 영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398-8)

파도 (외 2편)

파도가
밀려오면
아이들의 노래를 듣는다.

아이들은
더욱 사납게
모래알을 쓸다가
밀려가고
밀려와
대천의 노래가 된다.

영원한
아이들의 노래가 된다.

- 생활 문학 회장
- 무등 문학 동인
- 삼성화재 대리점

단군전

마니산
봉황새가
단군의 휘장을 달고
날아온 섬진강 고을

겨우내
까치가 무던히도 울더니
학정리에
바람꽃 견히고
물안개 일어
지리산 넘어오는 햇살은
동악산 삼인동 계곡으로 내려와
천부경을 읽네.

나의 노래로 부르고 싶고
너의 노래로 부르게 하고 싶은
님의 제단에
향을 드리우며
백당도
삼소도
단군전에 살았습니다.

- 천부경: 우주의 신비를 81자로 풀이한 진경
- 백 당: 신태운의 호
- 삼 소: 신대군의 호
- 바람꽃: 큰바람 일대 면산이 구름같이 보오얀 기운

태안사

딱따구리
산울림을
잃어버린 山寺
목탁소리로 영혼을 부르고

풍경소리
삭발에 부딪쳐
밤하늘에 오르면
별은
흐르는 개울에 달빛으로 내린다.

아침 이슬
방울 방울
안개꽃 되어 피고
빛이 되어줄 山寺에
바람 맨 스님
고독한 길 재촉한다.



■ 詩

몰락한 집 (外 2편)

김진문

(시인 :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723-4)

내 꿈은 수절 과부집, 솟을 대문 앞에서 언제나 허덕이며 잤다.
과부집은 묘하게 시간의 세월을 넘어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갔다.
내 목뼈가 오래전부터 솟을 대문에 못 박혀 굳어져 있었고
언제나 그 대문은 굳게 빗장이 질러 있었다.
엄지 손가락만한 동공이 내 가슴에서 자라고
하늘로 열린곳이 있었던지 대문 안쪽으로 새들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연꽃 무늬의 옷빛 문을 시리게 들여다 보다 잠든 밤.

나는 나중에서야 내 가슴에 난 동공을 치료할 수 있었다.
그 솟을 대문에 난 엄지 손가락만한 구멍 안쪽을 누구나 흔하게
살펴보는 따위에 불과했고 손가락을 끼어 넣어 빗장을 갈짝갈짝 밀어
열리는 하찮은 몰락한 집이었다.

그뒤,
수절과부가 홀로 쓸쓸하게 죽었다.
그것도 골동품을 털어가는 도둑들에게 달포만에 발견 되어져서.

당산나무 집

당산나무를 베어 불을 놓았다고
당산나무 집 종손이 미쳤다.
행랑채 머슴 둘째아들 마저도 덩달아 미쳤다.
종손과 행랑채 머슴 아들과는 친구 사이
병아리 억가리 만한 마을은
별똥 떨어지는 밤같이 무섭게 술렁 거렸다.
그 무덥던 날,
풀갈망 등에 지고 내달려도 어느새
머슴 둘째아들 풀망에 꽃은 낫을 빼들어 순식간에 후려치는
풀 모가지들
미쳤어도 애기 머슴시절 숨씨로 수북하게 쌓인
풀 모가지들
당산나무집 종손은 도시서 대학 나와
교련때 배운 총검술을 서슬 퍼렇게 치러 보이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한사코 속닥거렸다.
미쳤어도 배운것들을 한다고
비바람 천둥치는 여름밤엔 뒤등 상여집에선
미친 두 친구의 목소리가 깊이 들린다.
글을 배웠으니 글 읽는 소리가 들렸고
농사일을 배웠으니 낫질하는 소리가 서슬 퍼렇게
미쳤어도 배운 것들을 한다고
사람들은 한사코 속닥거렸다.

수간호사

6병동 정임이 누나 수간호사
반달 모양 치픈 두 눈속에는
대보름 밤 잠곡밥같이 끈끈하게 찰지어라
지난 나이에 도 버릴 것 없는 간간한 모습은
늦서리 맞은 단감마냥 단맛났지
오늘은 꽃 땀기 늘어뜨린 중환자실
평안도떡 머리 손질하러 간다.
검고 하얀 가르마 길
뻗듯하게 가야 할 길이 좋더라는
당찬 6병동 정임이 누나 수간호사
늦은 까치밥으로나 남겨 두었을까
오늘도 평안도떡 그 앙상한 손아귀에
참빗 하나 슬며시 쥐어주고 나오는
6병동 정임이 누나 수간호사
거기 그렇게,
꼭 그렇게 새 봄 까치밥으로 남아 있었으면.

■ 약력: 1961년 전남 곡성 출생

- 월간문학공간 신인상 당선
- 시집. (빈 세상에서 아침 저녁으로 나는 운다.)
- 전남시인협회
- 한국공간시인협회

집

金正淑

(전남대학교 서무과)

현거주지에 허름한 집 한채
사립문 떨어진 그 세월 짚어보니
아버지 돌아가신 해와 똑 같았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때워보지 못한채
이제는 호박넝쿨 이웃하여
제 멋대로 뻗어 엉키고 설키어
니집 내집 호박인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웃들 지나치며 하는 말
쓸데없이 참견도 하였습니다.
문지방에 붙여둔 복적 한장
골목지나 마을 앞 길까지 굽어 살피며
가난한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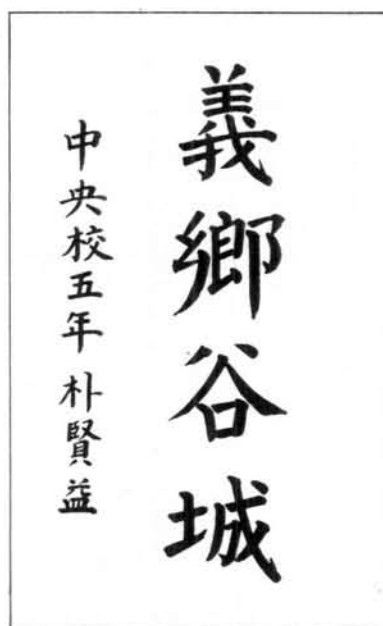




(한문 고학년 대상)



(한글 고학년 대상)



(한문 고학년 우수상)



(한글 고학년 우수상)

■ 저학년 산문 대상

우리 아버지

송 승 우

(석곡국교 3-2)

“부릉 부릉”

새벽 4시만 되면 내 잠을 깨우는 소리는 우리 아버지의 차소리 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화물차를 가지고 계시는데 소를 사러 가시던가 아니면 팔러 가시기 때문에 새벽마다 안개비를 맞으며 나가십니다. 나가실 때마다 형아와 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오셔서 엉덩이를 두드려 주고 가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녀석 고추좀 보자. 얼마나 컸나 어디쯤 봐”

하시며 고추를 만지시는 아빠손이 몹시도 거칠어서 고추가 아팠습니다. 소 고삐를 잡고 차에 태우려면 소는 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 큰 소를 있는 힘을 다해서 차에 싣고 시골로 또는 도시에 있는 식육점으로 실어다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손이 다치고 굼히고 해서 상처가 날때도 많이 있답니다. 우리 아빠 손은 그렇게 해서 상처가 낳아 흉터가 생기고 하나까 거칠수 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한번도 늦잠을 주무시는 날이 없는 우리 아버지!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옷을 사

주시고 용돈을 주시고 학용품도 사주시고 그런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일은 스스로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아버지를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승우가 빨리 자라서 아버지를 도와 드릴게요.



선풍기

백 명 재

(석곡국교 3-2)

선풍기는
어머니처럼
고운 손이 있나봐

쿨등에 송송
땀방울을 씻어주네

선풍기는
아빠처럼
다정한 마음이 있나봐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게 해주네

고마운 선풍기
부지런한 선풍기

나도 선풍기처럼
남을 위해 일할래요



‘꿀벌 처럼 살거예요’

서 선 옥

(중앙국교 5-1)

“엄마 왜 그래? 엄마가 불쌍한 사람이야!”

햇빛이 쨍쨍찌는 날에 내가 소리친 소리이다.

우리 엄마는 몇년 전 부터 음료수병과 우유팩을 모으셨다.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모으냐고 물어볼때마다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 하신다.

“엄마는 돈을 모으면서 부지런 해지고 저축도 하고 싶어서 란다. 이러면 1석2조잖니?” 라고 말씀 하시면서 항상 나를 달래신다.

그 일이 있는 후 자연 시간이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어떤 이유 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한 꿀벌에 대해 말씀 하셨다.

“여러분 꿀벌은 무엇이 특징인줄 알아요?”

“근면 성실하고 저축하는 거요”

우리반 아이들은 모두다 합창하듯 또렷하게 대답 하였다.

“선생님은 꿀벌에게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 해요”

“개미도 부지런 하지만 꿀벌은 부지런 하면서 성실 하기도 하지요”

“언제나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 틈틈히 저축 하기도 해요”

“부지런하고 돈을 모아 저축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나는 수업을 마치고 돌아 오면서 자연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을 되새겨 보았다.

엄마가 폐품을 모으는 것을 이제는 이해 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 드렸다.

“엄마, 죄송해요. 폐품을 모은다고 싫어했던것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날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다.

내방으로 돌아와서 나는 작은 다짐을 했다.

‘꿀벌아, 이제는 너에 교훈 성실과 저축을 나에 교훈으로 삼고 어떤일을 하던지 부지런해지고 작은돈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저축할 꺼야!’

오늘 내가 한 다짐은 이 세상의 태양이 사라 질때까지 영원히 간직 할 것이다.’

아침

김민섭

(창립국교 6-1)

아침이 찾아 와서
꽃에게 속삭인다.
곱고 예쁘게 피어나라고

아침이 다가 와서
나무를 부른다.
쑥쑥 자라고
탐스러운 열매 맺으라고

아침이 살며시 와서
나비를 깨운다.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으라고

아침이 성큼 와서
새들에게 말한다.
곱고 아름다운 노래 부르라고

아침이 내 귀에 대고
소근 거린다.
어서 일어나 학교 가라고

아침이 햇살을
한아름 담아와서
은 세상에 뿌려준다
은 세상이 화안히 밝아진다.

아침은 만물에게
희망과 꿈과 미래를
가져다 준다.



푸른 5월

안 상 용

(곡성중 1-1)

어린 새싹들이 파릇파릇 돌아나며 싱그러운 녹음을 전해주는 1년 12두달의 여왕 푸른 5월, 가정의 달 5월, 한 가지 더 붙이면 쉬는날이 많이 있는 5월이 난 1년중에 제일 기다려진다. 추운 겨울 하얀 눈으로 뒤덮여져 달달 떨어 이겨낸 나무들이 5월이 되면 다시 진한 녹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자라나는 것 또한 내가 5월을 기다리는 한가지 이유에 속한다고 할수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내게는 푸른 5월도 꼭 좋은 점만 있는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바로 농사일 때문이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좋아라 늦잠도 자고 놀수 있었지만 5월정도 되면 '수박 심고 가꾸기'와 '모내기' 그리고 '잔 심부름' 하기에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는 일도와 드리느라 정신이 없어진다. 그리고 남들은 날씨도 좋은 이 푸른 5월에 노는 즐거움과 싱그러움을 흠뻑 맛볼수 있는 공휴일이 기다려졌으나, 난 쉬는 날이면 빠짐없이 눈에 나가 일을 도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휴일이 기다려 지지 않는다. 그만큼 푸르고 싱그러운 5월이었으나, 그 와중속에

서 농사일이 어김없이 날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수박 김매기 같은 지겨운 하는 와중에서도 다행히 나를 즐겁고 일을 재미있게 해주는 것이 있다. 바로 파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 노고지리 이다. '째째' '찌찌' 노고지리가 짓는 이 소리를 들을때면 이상하게도 일이 조금더 쉬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새 또한 싱그럽고 푸른 5월을 산뜻하게 느끼게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말할수 있었다.

체육 시간때 축구 경기를 할때면 가끔 푸른 5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짓먹던 힘까지 다해서 운동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기도 한다. 자꾸자꾸 꿈이 커져만 가는 아이들 만의 날인 '어린이 날'. 우리들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는 '아버이 날'이 있는 5월은 가족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명실 상부한 가정의 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넓고 파란 5월의 푸른 하늘과 푸른 산들과 진녹빛의 풀잎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의 커다랗고 큰 꿈을 계속해서 부풀려 나가야 겠다고 마음 속으로 깊이 다짐하며 이 글을 이만 마치려 한다.

■ 중등부 운문 대상

강변에서

윤 석 중

(옥산중 2-1)

부르오!
누군지는 몰라도 부르고 있소

어서 대답하시오
왜 대답하지 않는거요.

저렇게 푸른 강엔 물고기가 있고,
강변에는 반짝이는 빛이 있지 않소.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의 눈을 여시오
그럼 커다란 강이 보일게요.

이젠 답할수 있겠소?
당신이 누구인지 말이요.

아직도 그게 싫으면 강변을 걸으시오
그럼 눈물 흘릴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선 종 수

(곡성고 2-1)

세계가 약동하고 있다. 동서 이데올로기의 종식과 구소련의 해체, 비동맹 국가들의 독자노선 추구, 독일의 통일, EC에 의한 서구 유럽 국가들의 경제 협력,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대통령 당선, UR(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시장 개방 이 모든 것들이 세계의 정세를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다. 21세기에 접어들고 있는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아끼질 않는다. 현대의 우리 세계를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국의 힘이 약하면 더 강한 국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힘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더이상 미국의 그늘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나라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여 살아 남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강대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방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

고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시켜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의무를 담당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이 지녀야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주장 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녀야 한다. 이 세상에는 비판론과 낙관론의 두 종류가 있는데 가급적 비판론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낙관론적인 생각을 지녀야 한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는 진취적인 사고관을 하면서 생활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자세로 청소년들은 학문의 본질을 익히고 진리탐구에 몰두해야 한다. 청소년은 청소년으로서 의무인 학업에 열중하면서 그 학문속에 내재해 있는 본질을 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 중에는 더러 ‘오로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한

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학문의 최종적 목적은 진리탐구 이고, 학문을 추구하는 청소년은 진리탐구라는 올바른 목적만을 지녀야 할것이다.

세번째 지녀야 할 자세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다. 그런 과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 우리들 이기에 더욱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될 것이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사명감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겠다.

앞에서 언급한 자세를 청소년들이 몸소 행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가히 밝으리라 생각된다. 내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젊음 이상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이때에 이 요청에 부합하여 건실한 삶을 살아야할 의무가 있다. 달려가자! 더높고 더푸른 이상을 향해! 젊은이들이여 그대앞에 놓인 꿈을 실현할때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그 꿈을 실현하길 바라면서 이 짧은글을 마친다.



고향 마을 기억속의 나의 고향집

이 미 라

(곡성고 1-4)

‘고향’ 너는 항상
가슴에 확 밀려오는
그리움과 함께
나를 기억 저편으로
끌고 가더구나.

연두빛 자기 모습을 감추고
가만히 아주 가만히 오는
봄이면
할아버지의 바쁜 손길속에서
고향집 너의 흠과 놀기에 바빴고,

모기향 피워놓은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여름밤이면
할머니의 시원한 부채바람과
열심히도 불었던 노란 하모니카로
더위도 잊을수 있었지.

길 가장자리로 몰린
마른 낙엽들의 사각거리는 소리와
거리 청소부 아저씨들의
한숨소리와 함께 오는 가을이면

지붕위로 떨어지는
밤송이들을 까며
드높은 하늘에는 잡고만 싶었던
고추 잠자리들이 많기도 했었지

창가를 흔들리게 하는
매몰찬 바람과 함께오는
겨울에는
밤새 내려 소복히 쌓인
하얀 눈들을 바라보며
발자국을 내기엔 너무나 아까워서
망설이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젠 그 소중한 기억들을
한가지 한가지씩 꺼내어
곱게곱게 아쉬움으로 포장해서
내 어린 마음의
한구석에 쌓아두어야지.

유적지를 다녀와서



이 지 혜
(곡성실고·2년)

창 너머에 장미는 작은 꽃 송이속에 은은한 향기를 담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고, 플라타너스 잎들은 짙은 녹색으로 점묘화처럼 교정을 장식하고 있었다. 아침 9시 45분 곡성군 유적지 순례를 하기위해 “청소년 유적지 순례단”이란 프랭카드가 붙어있는 버스에 올랐다. 항상 내가 태어난 고향의 수 많은 유적지들을 구경하지 못한것이 아쉬웠는데 오늘에서야 곡성 문화원측의 배려로 찾아갈수 있게되니 기뻐다. 언뜻언뜻 내다본 초여름 풍경은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다. 첫번째로 찾아가 유적지는 오희면 오지리의 도동묘(都東廟)로서 조선조 숙종 2년때 안호가 당초 승법리에 건립했다가 구한말(1905)경에 현위치로 옮겼는데 주자와 안향 선생님이 송나라에 가서서 주자학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게 됨으로서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춘추로 유림들이 제사를 지낸다 한다. 그 다음으로 덕산리의 덕산사를 찾아가 보았다. 이곳은 윤관 장군과 오연총 장군을 받드는 사당이라 했다. 나의 키만큼 자라 있는 풀들이 지나간 세월의 무상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게 했다. 지붕밑의 조화있는

색들은 선조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고 있는것 같았다. 오색 창연한 덕산사를 뒤로하고 덕양서원을 찾았다. 가는 도중에 펼쳐진 호수속 같은 푸른하늘, 아름답리 큰 느티나무가 만들어 내는 시원한 그늘, 산길의 여기저기에서 풍기는 향긋한 풀냄새. 이 모든 것들이 한쪽의 풍경화처럼 보였다. 덕양 서원은 지방 기념물 제56호로서 숙종때의 사액서원이라 했다. 서원 안에서 마셔보는 물맛이 시원하고 달콤했다. 잠깐의 휴식을 얻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대청마루가 포근하고 시원해서 마음에 들었다. 신승겸 장군의 사진을 모셔둔 사당에서 참배를 드린다음 그곳 으로부터 내려왔다. 그 다음으로 간곳이 태안사로서 내가 국민학교 때부터 듣고 보아온 곳이다. 6·25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돌아가신 경찰 아저씨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48층의 충혼탑과 보물 3가지와 삼층석탑이 있었고, 스님의 말씀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듯한 느낌과 참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어서 나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어 좋았던것 같다. 태안사에서

점심을 먹고 시원한 물에 손을 적신다음 출발점을 향해 달렸다. 도중에 신장절공의 계마석도 보았었다. 다음은 고려말 조선조 초기에 역사적 인물로서 제일왕자빈과 그의 왕자빈때 공을 많이 세웠던 마천목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거북이 모양의 커다란 신도비도 보았었고 아들 바위의 전설과 동악산, 형제봉을 지나 옥과에 자리잡고 있는 성룡사를 들렀다. 새로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어색한점도 없지않아 있었지만 옛 선조들의 몇만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것 같았다. 끝으로 충열문을 거쳐 의마총을 보았는데 월파장군이 탔던 말로서 금산전투에 주인 유월파장군이 적의 칼에 목이 잘려 전사하자 주인의 머리를 물고 300리길을 야밤에 뛰어와 삼경(새벽)에 합강마을 주인집에와 말이 울자 월파처 김씨가 나와보니 부인의 치마폭에 월파의 머리를 내려주고 마구간으로 들어간뒤 여물을 주어도 먹지도 않고 몇일 동안이나

굶다가 죽었다해서 지방 유림들이 사람도 하기 어려운 거사를 했다하여 합강마을 앞 현 위치에 묻은후 의마총이라 명명하였다 한다. 월파 유평노장군의 정열각은 마을길이 좁아 못가고 설명을 들었는데 유월파가 22살때 사마 양과에 합격하여 홍문관 정九품, 성균관 종九품등 여러 벼슬을 지냈으며 부모에 효성이 지극했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모집한 대장이며 6천여 의병의 좌부장으로 금산전투때 용전타 전사한 충신임. 그후 주령으로 삼강문을 세워 신하를 보내 제사케 하고 광주 표충사와 금산 종용당에 배향하고 겸면 영귀서원 등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는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군 하루동안 순례한 이 유적지들은 아무리 보아도 또 가고 싶은 곳인것만 같다. 곡성을 사랑하는 훈훈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한 곡성은 영원히 멋을 간직한 유향 또는 의향의 고장이 될것이다.



유적지를 다녀와서



임 갑 순

(곡성실고·2-3)

고적지 답사를 한다기에 무척이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솔직히 곡성에 자리잡은채 살아온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으면서도 제대로 누구에게 소개할 수 없는게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9시 40분쯤 학교앞에 관광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고적지 순례단」이라는 프랭카드가 바람에 휘날린채, 학교에서 대표로 우리반이 간다는것도 기뻐고 하루쯤 학교가 아닌 야외공부를 한다는것 또한 나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들었다. 제일 먼저 발을 내딛은 곳은 도동묘라는 곳이었다. 이 곳은 조선조 숙종 2년(1676년) 안호가 송나라 주자와 주자학의 시조인 안향 선생을 위해 오곡면 승법리에 건립한 것이다. 그 후 구한말(1905년)경 안씨 종중과 유림들이 현위치로 옮겼다. 방에는 용의 형상을 나타낸 향로와 술잔등이 있고 3/15, 9/15 제사를 1년에 2차례 유림들이 모시고 있다. 한눈에 띠건 한쪽에 서있는 아주 큰 은행나무였다. 더운 여름날씨를 한풀 꺾이게 하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제사를 지내는 방은 엄숙함이 서려 있었고 촛불은 항상 켜져 있었다.

“아무리 세계가 발전하고 또 변한다 해도 이젠 옛 시대를 동경하고 그리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문화원 원장선생님의 말씀이 뚜렷히 기억된다. 이곳은 경관이 무려 96개나 있고 방은 좁은 편이었다. 두번째로 향한 곳은 덕산사였다.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 좁았고 돌담 곳곳에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고려 예종때 여진족을 토벌하고 9성을 축조한 윤관 장군과 오연총 장군을 받드는 곳으로 1935년 함경도 경성에서 이곳 덕산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마당은 꽤 넓은편이었으나 사람이 뜸해선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곳이 바로 오씨 시조의 사원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향한곳은 덕양서원이다.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 아주 좁은 논길도 걸고 동네도 지났다. 갑자기 흰하게 뿔림을 느꼈고 대문에 크게 3개의 태극마크가 눈에 확 들어왔다. 이곳은 평산 신씨의 시조로 고려 충신 신승겸장군의 사당으로 1868년 철폐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었다. 신승겸 장군의 실화로는 창공을 날으는 세마리의 기러기중 좌측의

새를 정확하게 맞히셨다는 짧지만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만큼 신승겸 장군께서는 활을 잘 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셨다. 그동안 잘 몰랐는데 여기 곡성에도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으셨고 애국하신 충신들도 많았음을 알고나니 자부심이 생겨났다. 그 다음으로 답사한 곳은 태안사였다. 예전에도 여러번 가보았지만 「고적지 답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안사를 향하니 또다른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다. 원래의 이름은 대안사라 불리웠다 한다. 태안사는 신라경종때 신승 3사람이 이곳에 터를 잡고 공부를 하고 대각하여 이 소문이 전국에 퍼져 많은 학승이 몰려와 공부하였다고 한다. 또 옛날엔 건물도 수10동이 있었고 학승이 많을때는 100명이 넘었다는 전설이 있고 신라때는 화엄사와 송광사의 본사였다고 한다. 지금 화엄사의 말사로 돼있는 것은 여러차례의 동란으로 건물이 소각 내지는 폐허가 되서이다. 보물로는 조륜청정비 273호, 광자선사비 274호, 광자사자탑 275호가 있다. 죽곡면 당동 마을 앞 장절공이 뒀던 말을 매둔곳 (계마석)

을 보고 석곡 연반리 마을앞 국도변에 있는 신도비, 고려말 조선초 사람으로 고려 제 일왕자란때 공을 세운 장군의 비를 보고 옥과 성륜사로 갔다. 성륜사를 도착해서 거대한 일주문을 지나 절에 들어서니 대웅전, 지장전, 성연대, 미술관등이 우리나라 어느 절 못지않게 웅장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사찰이 내고장 곡성이 될때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뿌듯했다. 문화원에서 준비한 간식을 먹을때 성륜사의 경내가 너무나 한폭의 그림같은지라 간식이 더욱 꿀맛이었다. 잠시 구경한후 충열문과 월파장군의 말무덤과 유팽노장군의 정열각에 대한 설명을 문화원 원장님으로부터 들었다. 짧은 하루였지만 너무나 많은걸 배웠고 이젠 내가 사는 이곳 곡성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서 떳떳히 자랑할 수 있다는게 무엇보다 제일 기뻐다. 기회가 닿는다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둘러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신 문화원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유적지를 다녀와서



정금숙

(곡성실고·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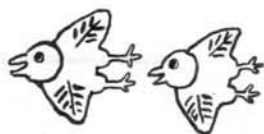
2학년때는 이런 기회가 없을거라 생각했다. 학교안이 아닌 자연을 찾아서 어디론가 우리반들과 함께 헤매며 느낌을 얻는걸 말이다. 헌데 그 상상밖으로 다가오는 견학이란 단어의 의미는 온몸을 움직이게 했다. 우리 것을 살리기 위한 신도불이처럼 우리 곡성의 유적지를 찾아 보게 되었다. 비록 매일 듣고 보는 이 적고 작은 한 군에서 찾아보는 유적지는 뭐! 다 그런거겠지 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감탄사를 올릴 정도였다. 아침부터 강렬히 비추는 해에 부딪혀 선생님 그리고 문화원 선생님, 친구들과 버스 창밖의 풍경들을 스쳐가며 눈을 의심한다. 평소보다 모든것이 더 빛나게 보이기에, 약간에 시간이 흘렀다. 생각도 못했고 가까운 거리에도 우리가 찾아보지 못한 유적지가 있다는걸 오늘에야 알았다. 제일 먼저 첫발을 디딘곳이 오지리에 있는 도동묘란 곳이었다. 그리 크다는걸 느끼진 못했지만 몇년 묵은 지는 모르지만 주위를 둘러싼 은행나무 밑에 걸친 건물이 원래 조선조 숙종때 안호가 안향과 더불어 송나라의 주자를 모시는 곳인데 아주 작은 방들로 위치 되었다. 그중에도

150년 묵은 인쇄기나 다름없는 96개의 경판이 섬세하게 정렬되 경판을 들여다 보기도 하며 아! 이렇게도 사용했구나 하면서 그곳의 흔적은 감추고 그 뒤를 이어 같은 마을 중간쯤 들어가게 되었다. 오광사란 곳인데 면암 최익현 선생과 선생의 제자十二 의사중 성암 조우식, 배현, 조영선 등의 영정을 모시고 지방 유림들이 춘추로 두차례 제사를 모신다고 한다. 일제때 왜경들이 여러차례 뜯었는데 3차례 뜯으려 할때 배현 선생님은 열쇠를 물고 자결하셨다. 스승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이유로, 제자다운 효를 보여 주신거다. 또한 덕산사는 고려 예종때 여진족을 토벌하고 9성을 축조한 윤관 장군과 오연총 장군을 받드는 사당으로 함경도 경성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이전까지는 별로 힘들다고는 느끼지 못했는데 세상에 이견 완전히 산속의 자연과의 결합을 해야겠다. 겨우 한 사람 정도가 다닐수 있는 길을 뚫고 산속을 들어가야 했다. 교복 치마 때문에 조금은 불편했지만 한없이 올라가는 길이기에 소리를 높이며 아픈 다리를 보면서 덕양서원(덕양사)이란 입구에 도착하자 뜨거운 빛

에 웃음 때문인지 온몸은 물줄기로 되고 먹을 물을 원했다.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께서 얼음덩이의 물처럼 시원한 물을 주셨다. 한모금의 물로 기운을 쏟는 기분이었다. 입구를 지나 들어가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모양을 이루었다. 평산 신씨의 시조, 고려 개국 공신인 신승겸 장군의 사당으로 숙종때 사액받은 서원으로 1868(고종5년)에 철폐되어 신씨 종중과 호남 유림들이 다시 복원하여 춘추로 제향하고 성민문, 덕양사, 연서재, 신덕재, 강당, 내삼문, 비각, 전사청, 고사 등으로 나뉘었다.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제일 힘든 이곳을 빠져 나가면서 덕양사의 또다른 면을 느낄수 있었다. 차를 타고 계속 풍경을 지나친다. 태안사를 가기 위해 차의 움직임은 울퉁불퉁한 길 이기에 더욱 심했다. 중학교때 익숙했던 탓인지 그리 새롭진 않았다. 태안사에 있는 보물 3점을 보고 나는 반대로 내려가면서 6·25때 싸우다 돌아가신 경찰관 48명을 위로키 위하여 세워진 48층탑을 보고 계곡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 코스로 가는 도중 신승겸 장군의 계마석을 보고 고려때 공을 세운 마천목 장군의 신도비를 보고 성륜사로 향했다. 성륜사는 처음 가보는 곳인데 너무나도 모든 건물들이 웅장했고 경내면적도 10만평이나 된다 하며 너무 조용하고 한쪽의 화폭과도 같았다. 조실스님, 청화스님이 계시는데 성륜사에다 여생을 바쳐 대대적인 불교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잠시후 삼오리 마을에 위치한 충열문인데 이곳은 경지 정리 사

업으로 길이 막혀 갈수가 없어 그곳 앞에서 하차하여 문화원 원장님의 설명을 들은 즉 여자로서 가슴이 웅클했다. 밀양박씨 박언배가 인조5(1627년)년 정묘호란때 청주 광주등 지역에서 전공을 세우고 순절 했는데 그후 초혼반장때 박씨의 부인 완산이씨는 2살된 유아를 시숙에게 잘 부탁한다고 한뒤 글을 써놓고 자결했다는 말이 후대에 알려져 순조 5년 을축(1805)에 나라에서 벼슬을 증 하고 정여를 명하여 사액하였다 하며 옛날엔 여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충효를 했는데 지금은 충효는 고사하고 인심이 불량 해가고 있으니 하루속히 동방예의지국 국민이 되었으면 했든 문화원장님의 말씀이 새삼 느껴지며 역시 우리것은 소중한 것이다. 유적지들을 돌아 보고 또 한번 머리를 굽적였다. 그동안 몰랐던 것이 너무 많고 한번쯤이라도 유적지에 대해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곡성 유적지는 이렇다고 말하겠다.

모든 구경을 하고 돌아가려 할때 내리던 소나기에 오늘 힘들었던 것은 빗속으로 떠내려가게 하였다. 언제나 우리 선조 일이 담긴 우리 고장의 유적지를 보살핌으로써 유향인 곡성군이 더욱 빛날 것이다.



내고장 곡성 제 2 호

발행일 : 1994년 12월 15일

인쇄일 : 1994년 12월 31일

발행처 : 곡 성 문 화 원

발행인 : 김 길 영

인쇄처 : 청 진 문 화 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0-1

☎ (062) 223-4346

〈非賣品〉